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한 살 림 의 협 동 운 동 말 하 다

II

모심과
살림연구소

차 례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I

떠내는 글 _ 4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박재일(1987) _ 6

콩나물 애기 좀 합시다 김지하(1988) _ 9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이와미 다카시, 한살림모임 역(1989) _ 16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 박재일 외(1990) _ 35

한살림 공동체란? 천규석(1992) _ 55

협동조합의 공동구입 생협중앙회 역(2000) _ 73

대중운동의 운동론과 조직론 생협중앙회 역(2000) _ 123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박재일(2003) _ 149

한살림운동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국(2003) _ 166

조합원을 중심에 둔 조직운동을 위하여 윤희진(2004) _ 178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 과제 윤형근(2007) _ 190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Ⅱ

떠내는 글 _ 4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 역사와 전망 김재겸(2011) _ 6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김용우(2012) _ 32

영성과 협동조합 주요섭(2012) _ 6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조완형(2012) _ 89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조완형(2012) _ 104

‘생명’의 눈으로 본 한살림 협동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2012) _ 144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을 펴내며

봉준호의 설국열차가 그러하듯이, 한살림에게 있어 협동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하는 생산과 소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함축합니다. 일찍이 원주보고서(1982)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을 천명했고, 1989년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는 “협동운동의 광범위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살림은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과 활동을 추스르며 조직을 다지고 확대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 온 탓에 한살림 협동운동에 담아내고자 했던 비전과 가치, 원칙과 목표 등에 대한 학습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침 협동조합 열풍이 뜨거울 이때, 우리의 협동운동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 이론과 제도, 실천의 경험들을 공부하고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살림 협동운동의 철학과 가치, 정체성을 밝히고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의 시선은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의 논리 너머에 있습니다. 소비조합의 경제적 편익론을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은 ‘협동’ 농장과 ‘협업’ 마을의 섬세하면서도 거대한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함께 만들기(共

産)’와 ‘함께 살기(共生)’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살림’의 ‘한’의 의미, 즉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깊이깊이 천착했습니다.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한’.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한’.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혹은 ‘재창조’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한자 말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협동조합 열풍은 매우 소중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기운을 타고 한살림 협동운동도, 한국의 협동운동도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 한살림운동 선배들이 학습했던 자료와 한살림 내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묶어서 한살림 협동운동의 길을 밝히는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습과 토론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7월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 역사와 전망*

김재겸 | 한살림서울생협 상무이사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운동**의 관계

생명운동으로써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세계관 정립을 제안한 최초의 문건은 ‘원주보고서’라 할 수 있다.*** 원주보고서는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오던 협동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고 산업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반 생명성을 극복해 보려는 운동 방향 정리와 같은 글이다. 원주보고서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맥락이 이어져 한살림 선언에서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

* 「생명운동 30년 자료집」, 모심과살림연구소, 2011

** 생활협동운동은 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한 운동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생활협동운동으로 표현한 것은 생협 활동을 포함하여 생산자들의 활동, 협동조합이 아닌 방식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1981년을 전후해서 원주캠프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표집필자는 김지하 선생으로 추정되고 무위당장일순선생을 비롯한 원주캠프 구성원들이 토의와 수정을 통해 확정되었다.(김용우) 이 글은 이후 목크지 “제3세계” “남녘땅 뱃노래” 등을 통하여 일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로 표현한다.

1990년에 발간된 무크지 『한살림』 속 대담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에서 당시 한살림모임 의장이었던 박재일 선생은 한살림운동의 출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농약으로 농민들이 쓰러져가고 먹을거리 오염이 밥상을 위협하고 있던 현실에 직면에 있었고, 농업의 붕괴로 농촌 지역 공동체가 소멸해 가면서 농촌과 탄광지역의 협동운동이 사라져갔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생명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협동적 삶을 실현해 가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가 만나고 연결하고 연대해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가톨릭 농민운동 가운데에서도 나타내는데, 농민운동의 중심에 서서 사회구조, 제도, 정책의 개선과 사회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가톨릭농민회는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운동의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운동과 삶의 일치’라는 방향에서 조직론을 정비하고,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자각은 ‘생명’과 ‘살림’의 언어를 사회 속에 확산시키고, 농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협동적 나눔을 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협동운동의 실천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협동운동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17~18세기 조선 후기의 ‘두레’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계’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일제 강

점기 시기의 협동조합 운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출발 지점에서부터 구판장형 소비자협동조합의 한계를 간파하여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물품개발을 하고 조합원 활동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출발하였다. 또한, ‘먹을거리 생협’은 생명운동이 시작했던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운동적 실험에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생협운동이 출발한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은 군사 독재가 빨리 종식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차 있었고,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노동문제나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자주 등장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첨예화된 사회 문제들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희망의 대안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는 관료주의의 폐해, 체르노빌 사건 등으로 사회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기의 시대였는데, 경제성장기의 그늘이 환경 문제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고도 산업화 사회로 가는 이면에는 공해병으로 명명된 ‘온산 괴질’이 있었고, 식량증산 정책의 이면에는 농민들의 농약 중독이 있었다.

생협은 지금까지 협동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출발했지만 반성적 성찰을 통해 농업, 직거래, 공동구입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되고 기존의 상품 유통방식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한 상품화 방식이 아닌 물품개발 방식을 통하여 자기를 확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운동과 생활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협동운동은 공통기반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한국형 생활협동운동의 탄생

전술한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의 논의가 활발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협동운동의 기원은 17~18세기 조선 후기의 ‘두레’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계’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시기의 협동조합 운동을 그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직거래 운동과 60년대 이후의 협동운동이나 협동조합에서 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해방 후 협동조합운동과 신용협동조합

일제 강점기 시기의 협동조합 운동은 노동자, 천도교, 기독교 등 다양한 그룹에서 운동을 펼쳐왔으나 1933년 이후에는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을 강제 해산하고 지도자를 옥에 가두는 등 일제의 탄압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끊기고 만다. 해방 후의 협동조합은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고 정책수행 기구화 된 농협 등 협동조합이 주류를 이룬다. 이 가운데 민 주도의 최초의 협동조합이 풀무학교에서 생겨나게 된다. 풀무학교 내에 설치한 구판장형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다. 홍성의 구판장형 협동조합이 지역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면, 민 주도의 협동조합의 맥으로 만든 것은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5월에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주축이 되어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서울에서는

가톨릭 교인을 중심으로 중앙신협을 설립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 전국에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후, 협동교육 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은 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 유일한 민 주도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조합원 참여에 의한 운영, 고리대가 횡행했던 상황에서 서민 금융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 천주교 원주교구와 강원도 소협운동

1965년에 원주교구의 초대 주교로 지학순 주교가 취임하게 되는데, 교회의 사회참여를 공표한 제2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장일순 선생과 함께 지역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쳐낸다. 사목지침을 통하여 협동조합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1966년 원동성당에서 원주신협을 조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문막, 단구, 주문진, 삼옥신협 등을 만든다. 1969년에는 진광학원 부설 협동교육 연구소를 설립하고,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 협동운동을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대홍수는 협동운동이 크게 경험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독일 정부에서 지원한 구호자금을 나눠주고 소진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마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 등에서 생산협동, 신용협동, 기계 공동 이용, 구매협동 등의 사업을 만들내는 계기로 삼는다.

1978년에는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보는 강원도 평창의 신리

협동조합이 창립하게 된다. 생필품을 싸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리를 시작으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24개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된다. 생필품의 적정가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구관장형 매장 형태로 운영되었다. 89~95년 사이에 대부분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문을 닫게 된다.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협동운동은 원주지역의 협동운동의 경험을 자산으로 출발하였다.

3. 가톨릭농민회와 정농회, 풀무생협

1966년 결성된 가톨릭농민회는 농민의 권익보호 단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 왔던 단체이다. 유신과 5공화국 독재 시절 오원춘 사건, 함평 고구마 사건, 음성 소몰이 시위 등을 통해 농업·농민 문제의 해결과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잘못된 경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가톨릭농민회가 운동의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82년 무렵부터이다. 제도 및 정책 개선과 민주화운동을 위한 활동의 방향을 ‘공동체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1990년에는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생명운동으로서 조직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하였다.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의 생산자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살림 등 생협의 생산자로서 가톨릭농민회 회원이 참여한다. 가톨릭농민회는 생활 공동체 조직론과 생산 방식의 전환 등과 같이 농민들이 생활협동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유기농업과 직거래 운동이라는 의미에서는 1975년 창립된 정농회를 선각적인 실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농회는 바른 농업, 양심적인 농업을 실천하는 소수의 농민들로부터 만들어졌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거래를 시도하였다. 누구도 유기농업 실천을 엄두 내지 못할 때 바른농업을 실천하고 직거래를 시도했다. 또 하나 생산자들의 실천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홍성의 풀무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흥동면의 협동운동이다. 풀무농업학교를 시작하면서 구관장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유기농업을 확산했으며 1990년에는 홍성풀무소협을 만든다.

4. 원주보고서와 협동운동의 해외 사례 연수

1982년에 정리한 원주보고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은 원주 지역의 사회운동 그룹(원주캠프)의 대략적인 운동 방향이 잡혔음을 뜻했다. 이후 어떻게 운동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과정으로 1984~5년에는 일본 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그를 통해 생협, 직거래 단체, 야마기시회 등 다양한 실천을 하는 단체를 접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시민운동형 생협이 7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80년대에는 확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특히 일본의 두 그룹의 이론과 실천에 주목하게 되는데, 생활클럽생협에서는 공동구입 방법론, 반 조직, 예약주문, 물품개발 방식 등을, 제휴운동(산지 직거래)를

벌이고 있었던 ‘쓰고버리는시대를생각하는회(스테루카이)’, 고베지역의 운동그룹 등으로부터는 생산자, 소비자의 연대성이나 계약생산, 책임소비의 방식을 공부하게 되었다. 원주캠프에서뿐 아니라 안양생협,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일본의 협동운동 연수를 진행하였고 생활협동조합을 전개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5. 한국형 생활협동운동의 구상과 탄생

한국형 협동운동의 모델이 탄생하는 데까지는 협동운동의 다양한 경험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강원도 지역의 협동운동을 확장으로 이어지고 소비자협동조합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이후 한살림과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협동조합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기틀이 된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한국형 생협은 이전까지 경험을 수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운동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직거래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협동을 해왔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으며 여성민우회 생협의 경우도 홍동면 지역의 풀무생협과 연대를 기반으로 직거래를 전개했다. 생협마다 자리매김이 다를 수 있지만 직거래는 한국 생협의 분명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둘째, 조합원의 구매력을 모아내는 ‘공동구입’ 활동을 통해 물품을 개발하고 열악한 자본력을 극복해 왔다. ‘공동구입’은 일본 시민운동

형 생협의 주요한 업태이며 조직화 방법론이기도 한데, 이를 한국 현실과 각 조합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 갔다. 과거 구판장형 소협이 일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했다면 생협은 구매력을 모아 내서 원하는 물품을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생활협동조합은 이러한 특징을 갖추으로써 생협 만의 안전하고 가치 있는 물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 참여를 통한 운영을 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초창기 생활협동조합운동

1. **안양생협:** 안양생협(현재의 바른생협)은 구판장형 생협이 가지고 있던 매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부터 배송공급, 사전예약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한다. 농산물을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기도 하고, 조합원들과 산지 방문을 하는 등 직거래를 시행했다. 조합원에 의한 출자, 이용,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전의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1985년 5월 준비회 출범)

2. **원주생협:** 원주캠프가 1980년대 새로운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으로서 유기농업운동과 도농 직거래를 시작한다. 1985년 6월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재의 원주한살림)을 창립하여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취급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3.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도시에서 지역 생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 조직인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현재의 생협전국연합회)가 설립된 것은 농촌의 경우보다 4, 5년 늦은 1983년이다. 1970년대에 지역의 신용 협동조합 가운데 일부 신협은 지역에 조합원과 주민들을 위해 구관장 성격의 소비자조합 매장을 개설한다. 이후, 신협 속의 소비자조합 등을 모아서 소비자협동조합 중앙회를 만든다.

4. 1986년 8월에는 경남소비자협동조합(이후 1991년에 경남한살림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1989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만들어진다. 한밭생협은 1988년에 창립하였다.

5. **한살림:** 1986년 한살림농산을 창립하고 1987년 한살림 가족들의 만남, 생산지 방문, 소비자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 1988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한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한살림생산자협의회가 창립됨으로써 도농 직거래 확산을 통하여 도시의 생활협동운동, 농촌의 생산공동체 활동을 일으켜 세우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모임을 창립하고 1989년에는 「한살림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생활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을 양 축으로 하는 생명운동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마련하게 된다. 도-농 직거래,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소협’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생협의 모습을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또한 ‘공동체 소협’과 함께 ‘생산자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협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흐름

우리나라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개발·취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먹을거리’의 문제는 단순히 생협이 취급하는 물품의 문제, 안전한 먹을거리를 개발·취급한다는 관점을 넘어서 도농 간 삶의 연대를 일상적으로 하게 하고 생산자-조합원 간의 협의에 의해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돈벌이 경제’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다이옥신 등 잔류농약 문제가 우선 대두되었다. 이어서,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등 계속되는 식품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신뢰할 만한 먹을거리를 찾는 시민들이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2008년에는 광우병문제, 멜라민파동 등이 전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는 세계식품분업 체계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다. 생협은 직거래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첨가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체계’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2010년에는 배추값 파동을 겪게 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환경의 변화는 ‘식량위기’를 예고하는 것 이면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요동치는 결과를 낳았다. 생협 농산물의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시장가격은 등락의 폭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은 것이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체계가 부각되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식품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신뢰할 만한 먹을거리 공급 시스템으로 생협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생협은 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조합원 수와 공급액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생협 조합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식품·유통자본이 수입 농식품을 포함한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을 취급하는 계기가 된다.

2010년 생협의 총공급고는 5,358억 원 이상이고(한살림, 아이쿱, 두레, 민우회 합계), 조합원은 481,920세대를 넘어섰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생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총 가구 수 대비 2.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표 1〉 생협조직의 조직 및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04~'07	'08/'07
공 급 액	한 살 림	70,202	79,403	93,592	108,955	132,598	15.8	21.7
	iCOOP생협연합회	42,813	53,447	73,407	94,220	130,150	30.1	38.1
	두레생협연합회	25,013	28,159	31,707	30,285	36,815	6.6	21.6
	민우회생협	6,607	6,653	7,479	8,604	11,352	9.2	31.9
	기 타	21,651	22,776	18,107	19,882	23,839	-2.8	19.9
	합 계	166,286	190,438	224,292	261,946	334,754	16.4	27.8
조 합 원 수	한 살 림	99,761	115,336	132,787	147,339	170,793	13.9	15.9
	iCOOP생협연합회	31,950	38,908	30,725	34,674	54,660	2.8	57.6
	두레생협연합회	29,856	34,627	37,670	37,157	44,575	7.6	20.0
	민우회생협	11,155	12,077	12,911	14,382	17,187	10.9	19.5
	기 타	31,612	34,078	31,795	33,957	37,420	2.4	10.2
	합 계	204,334	235,026	245,888	267,509	324,635	9.4	21.4

생활협동조합의 분화와 흐름*

1. 소협중앙회의 실패와 생협의 분화

생협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생협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소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 활동을 하거나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소협중앙회는 자연스럽게 생협의 구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한살림이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생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하게 된다. 소협중앙회의 지사무소로서는 공급규모가 컸고, 결산처리방식 등에서도 법률적 한계지점에 부딪친 것이 원인이었다. 88년부터 96년까지 소협중앙회는 회원 조합과 함께 물류사업을 시행했는데, 경영 미숙과 우리밀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부채를 남기고 정리를 하였다. 중앙회의 물류사업 실패는 결과적으로 생협의 분화를 가져왔는데 회원조합 중 일부가 수도권사업연합회를 구성하여 물류사업을 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21세기생협연대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지역생협들은 한살림사업연합, 생협수도권연합회, 21세기생협연대 3개의 사업연합회와 독자물류를 하는 몇 개 생협의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2. 생협법 제정과 생협의 성장

* 한국형 생활협동조합의 전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한살림을 포함하여 생활협동운동의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는 1990년부터 소비자협동조합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협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1998년 말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소매유통업체의 반발도 있었고 취급물품도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및 환경제품으로 제한하는 한계는 있었으나, 생협법 제정 이전에 임의단체로 활동하거나 사단법인으로 활동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생협의 사업추진 방식에 맞는 법적인 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3.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는 생협수도권사업연합으로 시작하였다. 바른, 주민, 석왕사, 한우리, 부천YMCA, 안양YMCA, 광명YMCA 등 수도권 지역의 7개 생협들이 물류와 물품개발을 함께하기 위해 사업연합을 구성하였다. 이후 생협수도권사업연합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소속 조합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연합회는 두레생협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회원 조합 중 일부가 두레생협으로 개칭을 하였다. 그러나 모(母) 단체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거나(YMCA등대생협, 에코생협) 지역 생협으로서 이미 토착화된 이름을 가진 생협들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2011년) 현재 17개 회원생협이 가입해 있다.

두레생협연합회는 지역 및 단위 생협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레생협연합회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생명운동과 관련하여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진행했던 정체성 토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이후 두레생협은 정체성을 “생명가치를 토대로 하고, 어머니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무대로 한 운동을 펼쳐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후 노동공부모임을 통하여 ‘지역생명운동 전략 찾기’를 정리하였고,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돌봄노동두레(위커즈)를 설립하고 두레지원센타를 만들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 아이쿱생협연합회

경인 지역의 9개 생협들이 수도권사업연합과 별도로 사업연합을 결성하였으며 21세기생협연대로 명명하였다.

초기부터 물류사업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라는 방향으로 조직화를 해갔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소규모 단체들이 생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구매대행제도와 같은 강력한 물류기능 집중과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 통합을 통하여 생협의 효율적 경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생협단체들 중 짧은 기간 내 가장 높은 사업성장을 이루는 연합회가 되었다. 단위생협의 배송, 시스템, 물류, 브랜드, 물품 등 모든 사업영역을 연합회가 집행하는 사업집중 시스템이고, 단위 생협은 조합원 활동을 중심으로 펼치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가진

양 측면인 사업과 활동을 별도의 체계로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협동조합이 가지는 규모와 대중성에 주목하여 생협이 이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5. 행복중심생협 (구 민우회생협)

여성민우회생협은 1989년 여성민우회라는 여성운동단체에 기반하여 창립되었다. 여성민우회생협의 등장은 한살림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생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 새로운 여성운동의 지평을 열었던 여성민우회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활동을 통해 주목받았으며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생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반 조직을 통한 활동을 충실히 하며 빠른 성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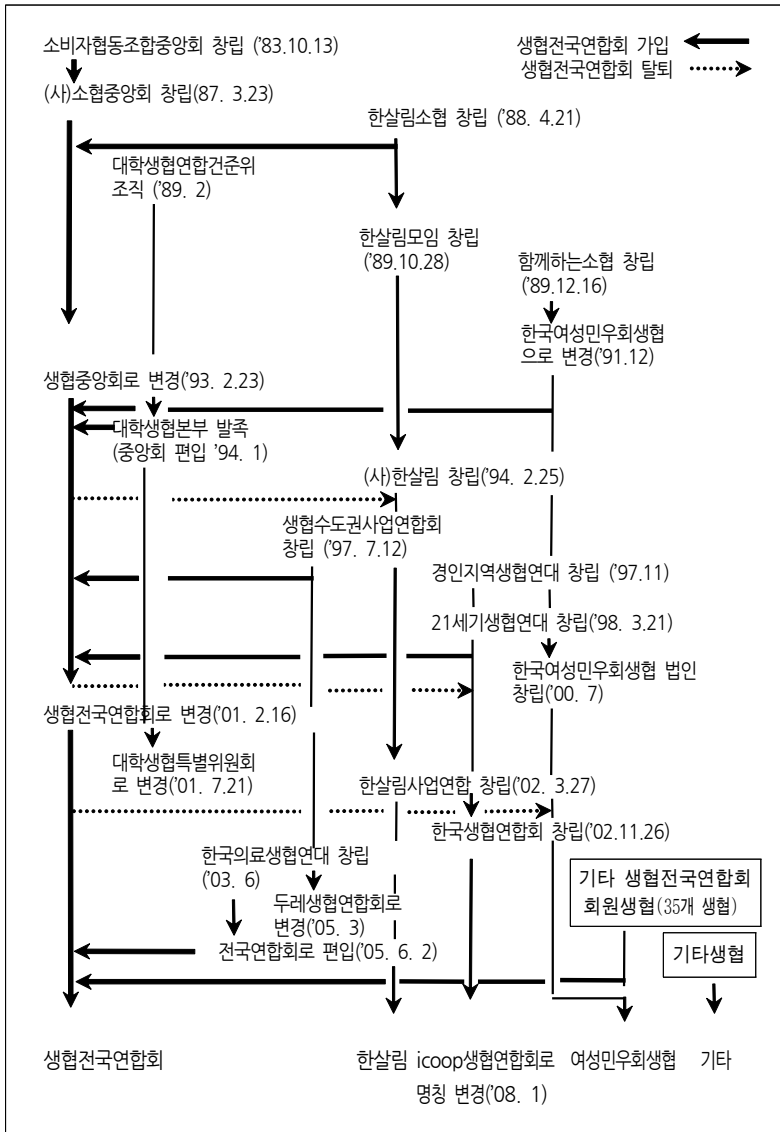
우리나라 생협들이 가장 크게 성장하던 2000년대에 여성민우회생협은 물류를 iCOOP에 의존하면서 고도 성장기에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놓쳤다. 여성민우회생협은 수도권 네 개의 생협과 진주의 여성민우회생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두 번째 생협법인연합회를 창립하고 대기업에 물류시스템을 위탁하는 형태로 민우회 독자 물류를 시작하였다. 또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창립 때부터 써온 여성민우회생협을 행복중심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였다.*

* 이재욱 “한국 생협운동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쟁점”에서 인용

6. 의료생협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협 이외의 협동조직으로 의료생협이 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힘을 모아 지역의 건강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이다. 한국의 의료생협은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 안산, 원주, 서울, 대전, 전주, 함께걸음 등으로 이어져왔다. 안성의료생협은 안성농민회와 기독교학생회가, 원주는 원주 지역 신협과 생협 등 지역협동조합이 힘을 모아 설립했고, 대전의료생협은 한발레츠라고 지역통화 운동단체가 주축이 됐으며, 함께걸음은 지역의 장애우연구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를 꿈꾸며 설립됐다.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병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의료생협은 병원 운영 외에도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료생협연합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합회에 소속된 의료생협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

〈표 2〉 생활협동조합의 분화와 흐름



한국형 생활협동운동의 특징

1. 창립기 한국형 생협의 내용과 특징

1) 직거래

생협 이전의 구판장형 생협이나 서구의 주류 소비자협동조합에는 없는 특성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고 물품을 개발하고 공급한다. 초창기 물품취급은 농산물이 중심이었고, 현재 가공품과 생활 용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직거래의 원칙인 약정과 이에 기반한 소비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자와의 대면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 농업과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동과 사업을 중요시 한 생협은 농산물을 중심 물품으로 취급했다. 또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생협이든 자연스럽게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의 취급으로 이어졌다. 유기농산물이 가지는 생명·생태 존중의 관점 안에 한국형 생협운동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생협운동이 태동하던 당시에는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합원과 생산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품을 하나씩

09년 말 현재 자료 『新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참조.(생협전국연합회 발행)

개발하고 안전성을 높여나갔다. 그 결과 유기농산물과 친환경 가공품의 공급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한국형 생협운동은 식량자급이나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더불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한국 사회 속에서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해 국내산 밀을 되살려 보급하고, 농업이 가지는 생태 순환적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이상기후에 의한 세계 곡물시장이 흔들리는 등의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량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쌀,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3) 공동구입과 안전한 먹을거리

조합원의 구매력을 모아내는 ‘공동구입’ 활동을 통하여 물품을 개발하고 열악한 자본력을 극복해 왔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개발·공급할 수 있었던 힘은 ‘공동구입’ 으로부터 나온다. 물품개발 과정에서부터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사전 예약주문과 공동체 공급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생협이 탄생하기 이전 구판장형 소협이 일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생협은 구매력을 모아내서 원하는 물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공급사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생협의 매장은 과거 구판장형 매장과 같은 형태가 아닌, 주문공급 사업에서 개발된 물품을 한 장소에서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고, 현재도 매장의 특성에 맞는 물품 들을 개발·공급하고 있지만 일반 물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

4) 조합원 참여에 의한 운영

생협이 시민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선각적 실천가들이 높은 목표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구매행위를 바꾸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방식에 눈 뜨게 한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물품개발 과정에도 참여하고 지역별, 특정 활동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내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에는 핵발전 문제, 유전자조작식품 문제 등 생활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사회적 운동의 방향으로서 특징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사회경제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적 강제력이나 이윤 동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동인을 찾는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며, 그 범주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NGO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선 협동운동 혹은 생활협동운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적 결사체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협동운동의 사회적 운동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세계에는 10억명 이상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협동조합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더 이상

〈표 3〉 주류사회의 방향과 생협운동이 사회에 제안한 대안 비교

	주류사회의 방향	생협운동이 사회에 제안한 대안
경제적 시스템	상품화, 자산가치증식 등 이윤동기 시스템	필요와 열망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제조직, 협동과 협의의 시스템
사회적 목표	대량생산, 대량소비, 상품화 사회	시민, 지역사회 자치권 향상
사회, 경제 운동	노동운동, 정치운동	대안운동(대안에너지, 재활용가게 등), 협동운동(생협, 노협,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공제 조직 등) 생태, 유기농업운동

사회변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활협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가 목적인 상품화 체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 조성 방식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또 하나는 직거래가 가지는 생산-소비 협의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협은 조합원들의 필요를 조직하는 곳으로 필요량을 예측하고 생산 방식을 의논하고 가격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시민들과 지역사회들의 자치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한다. 생활협동조합이 지금까지 해온 가장 중요한 일은 먹을거리의 자치력 향상이었다. 이를 위해 시장 시스템을 벗어나 생산자와 손을 잡고 농산물을 직거래 하고, 조합원들 손으로 물품을 개발하고 공급해 온 것이다. 사회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거나 물품의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고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시스템을 사회에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먹을거리 선택권과 자치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앞으로 먹을거리 자치력 확대를 넘어서 돌봄 영역, 에너지 영역 등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 지역사회 자치력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 갈 것이다.

'생명운동 관점의 생활협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도농 직거래의 변화와 과제

생활협동운동이 '농업'을 운동의 중요한 테마로 생각하고 직거래를 공급의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는 창립기의 생협과 지금의 생협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시대에 농업과 식량 문제는 조합원과 함께 운동해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참여하는 생산자와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창립기부터 가지고 왔던 대면 관계 중심의 직거래 활동을 생산자와 조합원의 구성 변화에 맞춰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꾸러미 등 CSA형 직거래시스템이다. 생협은 관계 중심으로 도농 직거래가 만들어져 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그 결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면에서 CSA형 농업은 생협형 직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공급방식의 변화: 공동체공급에서 개별공급, 매장공급으로 이동

공동체 공급은 소규모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며, 조합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생협운동이 출발하여 25년 이상이 흐른 지금, 공동체 공급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조합원 들이 매장공급과 개별공급으로 이동하였다. 전업 주부가 참여하여 물품 나눔, 주문접수, 정보 나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협 운동에 참여하였던 시기가 지나고 매장과 개별공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직활동 영역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 의제를 중심으로 많은 조합원 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생협이 갖는 과제라 하겠다.

3. 생활협동운동 의제의 사회화

농업, 식량자급 등은 생협이 창립기에서부터 가져온 의제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밀 살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현재와 같이 기후변화, 식량위기가 상존하는 시기는 농업이나 식량자급에 대해 영향력 있는 단체로 변한 생협이 자신의 의제를 정책화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특히 식품안전 영역에서 GM농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 등을 사회의제화 하고 있다. 또한, 핵문제와 에너지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활동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스스로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의 생협, 생활협동운동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1년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기본법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규모 형태로 노동을 조직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사회적 필요를 조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택지로서 협동조합이 가능해졌고, 시민사회에서도 상호부조와 협동에 의한 스스로의 문제해결 방식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에 제정되고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설립신고가 가능해졌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소규모 협동조합이다.

기본법 발효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협동조합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협동조합 붐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생활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소비의 유대가 기본인 협동조직으로 개별법에 의거한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고 현실 경제 속 성립 가능성이 높다. 기본법 시대의 생협은 그동안 생협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온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체와 주체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지

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협동운동,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필요로 했고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협동운동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호혜의 망을 넓히고 시민, 지역 자치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성미산마을과 같은 도시형 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필요와 열망을 이웃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관점에서 협동운동의 관점과 같다. 마을운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와 개인 들이 결합한다. 마을운동은 생활협동운동이 가지는 운동의 상상력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펼쳐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운동은 협동운동과 만남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경제적 자치와 생활의 필요가 지역적으로 해결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생명운동과 탈근대 협동운동*

김 용 우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협동조합 열풍과 시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협동조합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비취지기도 하고, 정부도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연일 행사계획과 보도 자료를 내놓는다. (2012년) 7월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도 있었다. 이쯤 되면 한국 사회가 협동조합을 대안경제의 핵심으로 파악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협동조합은 1844년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이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17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경제제도인데 왜 지금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각광받을 만한 것인가? 모든 협동조합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 『모심과 살림』 0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2

없다.

초기 협동조합은 산업자본주의 횡포에 맞선 반독점운동이자 노동자들의 자립적 운동이었다. 당시 자본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독일의 경우는 소농과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의 영농 및 운영 자본 조달을 위해 신협운동이 싹트다. 당시 금융자본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항적 방식으로서의 ‘노동조합’과 창조적 방식으로의 ‘협동조합’이라는 근대에 대항하는 무기(?)를 통해서였다. 특히 협동조합은 인류의 오랜 이상적 공동체 건설에 대한 상상과 실험 속에서 싹트고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우애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은 사회주의 사상을 싹트게 하는 촉매가 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초기 협동조합은 독점적이고 착취적인 자본주의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고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 농촌에서는 수공업자와 농민들, 즉 약자들의 조합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약 1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탈근대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반자본주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또한 그 안에서 독점자본과 경쟁하면서 생존과 확장을 동시에 꾀해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탈근대적인 측면에서 또는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조망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정신(사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그러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이 자체의 정형화된 틀이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시대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 진화해온 개방적인 운동이고 본질적으로 인류의 오랜 열망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운동의 시선에서 협동운동은 재

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인류의 다양한 협동운동의 형식과 제도 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정착되고 세계화된 제도의 하나이다. 한살림으로 대표되는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식과 제도* 중에서 현재까지의 협동조합이 가지는 장점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열었다. 이것은 서구의 오랜 전통을 가진 협동조합운동과는 다른 생각과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새로운 시도는 스스로의 자산이고 훌륭한 씨앗이다.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폭넓은 조망과 성찰, 평가 없이 조성되는 협동조합운동의 봄은 실속이 빈약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 등에 기대어 협동조합에 고무되고 있는 시민사회 역시, 다음과 같은 조건들로 인해 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운영 경험을 가진 활동가(지도자) 층이 빈곤하다. 협동조합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고민을 거친 지도자가 길러지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실제 협동조합의 조직화가 진행될 때 성공과 안착에 희망을 갖기 힘들다.

둘째로, 협동운동의 기본은 민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자율적인 조직인데 현재의 흐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결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될 수 없다. 그

* 사실 우리나라의 계나 두레, 서구의 다양한 마을 단위 우애에 기초한 협동 전통들, 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임은 모두 협동운동의 한 형식이며 언제든지 현실의 운동으로 승화·발전할 수 있다.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관 주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생명력과 자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는 최근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협동조합 이론과 경영서들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협동조합의 170년에 가까운 오랜 경험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협동운동진영은 아직 서구 협동운동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다양한 사례들을 풍부히 알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자칫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미성숙성이다. 유사의료생협과 유사대안교육과 같은 천박성이 횡행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속성과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속에서 협동조합법과 정부의 협동조합 장려 정책이 자칫 유사협동조합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신뢰의 싹을 잘라버릴 위험을 낳는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 상황에 맞는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를 우선 잡아야 한다. 그리고 왜 현재 한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구와 다른 조건과 인식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제기된 생명사상과 생명협동운동의 성과-이것은 단순히 한살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주의 지역협동운동 사례나 실상사가 있는 산내의 공동체운동 성과, 다양한 대안교육운동 성과, 귀농운동본부, 녹색평론의 성과 등을 포괄한다-와 의미를 자기 자산으로 할 때 희망이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근대 협동조합의 형성과 분위기

서구에서 태동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근대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함께 형성된 근대민주주의와 근대국가, 시장경제체제, 자유·평등·우애로 대변되는 이념적 가치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근대국가체제나 시장경제체제를 넘어서려 하지도 않고 또한 근대 가치를 넘어서는 다른 가치를 추구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근대국가체제 안에서 근대민주주의 원칙 아래 운영하고, 근대시장체계 안에서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경영하려고 하며,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자유·평등·우애’의 근대 가치에 충실하다. 어찌 보면 협동조합이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국가의 다양한 폭력과 욕망을 넘어서 자구적으로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특성은 근대의 폭력과 수탈에 시달린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본주의와 근대를 초극하려는 다양한 운동진영에도 매력적인 희망을 준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이러한 자체의 근대성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 때, 또는 협동조합을 끌고 갈 희망을 갖지 못할 때 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 굴절될 가능성을 이미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를 아는 것은 탈근대적 생명협동운동이 협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진화한 오늘의 현실에서 생명운동이 만나고 바라보는 협동조합운동이 만개하고 확장할 것이다.

먼저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이 설립될 즈음(1840년대)의 영국

사회 현실과 대다수 도시노동자들의 삶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엥겔스*의 시각을 빌려보자.

노동자가 구입하는 감자는 열등한 것이고 채소도 시들은 것이며 치즈는 오래되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고 돼지고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며 소고기는 불품없고 질기며 늙고 병들어 자연사한 소의 고기여서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고 때로는 반쯤 부패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자들은 대개 열등한 상품을 구입하여 싸게 파는 행상인들이다.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보잘 것 없는 수입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3쪽)

노동자계급은 중간계급의 돈 욕심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희생당한다. 제조업자와 상인은 소비자의 건강은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고 극히 유해한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식료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104쪽)

소매상들은 일반적으로 가짜 저울이나 가짜 자를 사용했다. 경찰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수없이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의 속임수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맨체스터 가디언>지에서 발췌한 다음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844년 6월 16일 로치데일 지방재판소 : 4명의 소매상인이 가벼운 저울을 사용한 혐의로 5~10실링의 벌금형을 받았다.

스톡포트 지방재판소 : 두 소매상인이 1실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

*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F. 엥겔스, 박준식의 옮김, 도서출판 두리)에서 인용했으며 해당 쪽수를 표기하였다.

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가벼운 저울 7개와 가짜 저울눈 1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명 다 경고를 받았다.

6월 19일, 로치데일 지방재판소 : 소매상인 한 명이 5실링의 벌금을 받았다.

6월 22일, 맨체스터 치안재판소 : 19명의 소매상인들이 2실링 6펜스에서 2파운드까지 벌금형을 받았다.

7월 13일 맨체스터....., 7월 24일 로치데일....., 7월 27일 볼튼....., 8월 3일 볼튼.....,(107쪽)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해서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식으로 살아간다. 여러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수단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가장 여건이 좋은 노동자들조차 실직과 기아의 위기에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죽는다. (108쪽)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아주 오래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이상촌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로버트 오웬과 윌리엄 킹의 뉴라나크 실험과 초기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실패 경험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로치데일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원칙을 들여다보는 것은 협동조합의 시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을 창립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해고된 28명

의 노동자들이었다. 처음 해고된 사람들은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을 창립할 때는 28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영원칙에는 ‘정량·정품을 제 가격에’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초기협동조합이 반독점운동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주권운동이며 약자로서의 생활방위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모습

1814년 빈 회의를 통해 느슨한 독일연방으로 출범한 독일에서는 왕정복고를 놓고 메테르니히가 통합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세력을 탄압하였다. 관세동맹은 독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켰다. 한편으로 독일의 서부와 중부지방에서는 농노제가 소멸되어 농지를 할양 받은 소농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농자금이 없어 고리대금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농자재나 새끼돼지를 사서 수확 또는 사육해 출하한 뒤에 돈을 갚았는데, 워낙 고리채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빚은 늘어나고만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840년대 감자의 흉작이 찾아왔고 1845-1847년의 곡물흉작은 소농의 생존위기를 불러왔다.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났고 메테르니히는 실각했다. 그러나 빌헬름4세 황제와 자유주의세력 간의 갈등 속에 혼란기간이 지속되고 소농들은 시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862년 비스마르크 수상이 앉을 때까지 계속된다. 라이파이젠은 1845년 마을의 촌장에 취임한 이후 1848년 빛의 지옥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

해 경제대출조합과 빵 조합을 만들었다.

초기 라이파이젠 조합은 라이파이젠 자신이 기독교신자였기에 기독교에 바탕을 둔 박애주의 정신에 뿌리박은 자선적 성격의 조합이었다. 즉 돈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이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베푸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후에 이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1864년경에 이르면 돈을 빌린 사람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 상호부조와 자력갱생의 신용대출조합으로 거듭나게 된다.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슬로건은 이즈음부터 사용되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도시에서는 독일수공업자들이 길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서히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있었다. 길드 제도 아래서의 도제공과 하청업체들은 이후 독일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직공과 수공업체제로 변환되는데, 작센 주의 텔리체 읍장이었던 술체는 읍 주민의 고통스러운 삶 이면에 있는 것을 자본의 부족으로 보고 이를 위해 1849년 공제조합(질병과 사망)과 구두제조직공을 위한 원료구매조합을 결성했으며 이어서 1850년에는 직공들을 중심으로 대부조합을 만들었다. 라이파이젠과 술체에 의해 독일의 협동조합 전통이 세워졌다.

프랑스의 모습

샤를 푸리에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계급 대립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업과 산업자본의 횡포를 ‘최대의 악’으로 보았다. 그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노동의 정의와 사회화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는 땅과 건물(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팔랑쥬에서 공동으로 노동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토록 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하였다. 특히 푸리에에는 과잉생산이 노동자들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보고 생산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노동자의 욕망은 선하게 보았다. 푸리에의 생각은 미국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은 생시몽이었는데 그 역시 소유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결국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수단을 공동체적인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시몽과 푸리에의 생각은 노동자협동조합의 현실화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 생시몽과 푸리에에는 협동조합을 직접 조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초기 협동조합 태동기의 상황을 보면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association)로 출발했지만 산업자본주의체제와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시선과 과학주의에 기초한 성장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폭력적인 산업자본주의 횡포와 근대국가 초기의 혼란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구적이고 자립적인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후 전개된 상황에서도 확인되지만 산업 및 유통 자본과 경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며 산업공황을 만났을 때는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곤란에 봉착하기도 한다. 영국의 소비조합이나 독일의 신협과 농협, 프랑스의 노동자 협동조합

은 산업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강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산업자본에 저항한 자립경제와 공동체에 대한 열망에 기초하고 있다.

초기협동조합은 사회의 절대다수자인 노동자와 농민 등 경제적 약자들이 우애의 협동조합으로 결집하고 구매와 이용을 집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구의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온 과정은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며 부침을 거듭해왔다. 즉 협동조합 역시 자본기업과 경쟁하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자본기업을 꺾기도 하며 때로는 침몰하기도 해온 역사이다. 소비조합만을 놓고 본다면 경쟁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은 협동조합이 어떤 대안사회로의 전망을 가지고 운동해 왔다기보다는 반독점운동으로서 자본기업과의 경쟁에 치중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국가를 변혁하거나 대안사회로 나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협동조합적 자본주의로의 대체를 꿈꿔 왔지만 그 역시 험난한 경쟁을 통해서 현재의 지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적 자본주의 노선과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이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둘 다 근대성의 한계에 갇혀 있다.

한국에서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의 등장

한국 사회에서 전근대적인 협동운동인 계나 두레가 아닌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아직도 논란거리이나 대체로 192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본다. YMCA, 천도교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과 재일 유학생들의 환국과 신간회 등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농촌소비조합운동이 192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때의 협동조합은 소비조합과 공제조합이 중심이었으며 농촌조합의 경우 농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한때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던 자주적인 협동조합은 1938년 일제의 해산령으로 모두 사라지고 만다.

민간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 몽양 여운형의 인민위원회를 따라 전국에 다시 등장했지만 1948년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불법화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 공교로운 것은 이 시기까지 협동조합이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과제 앞에서 전개된 운동이었기에 좌익으로 몰려 해산당했다는 사실이다. 일제와 미군정의 이러한 시선(視線)은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가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좌익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부담스러워했으며 협동조합운동가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 탄압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극심한 좌우 대립의 최정점인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민간 협동조합이 발흥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민간 협동조합은 외국인이자 성직자인 메리 가별 수녀에 의해 1959년에야 다시 시작되며 가톨릭이라는 조직을 배경으로 신용협동운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한편 1960년 상업은행에 세워진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

총의 소비조합운동도 있다. 이 운동은 이승만 정부 아래서 어용노총으로 세워진 한국노총을 체제 내화하기 위한 당근 정책으로 시작되었는데 박정희 권력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부산의 향운노조와 광산노조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향운노조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광산노조 소비조합은 70년대 원주교구의 활동과 맞물려 생필품을 공동구매함으로써 소비조합 본연의 반독점 운동을 전개한 성과들이 있다.

1972년 남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가톨릭 원주교구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지역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그 자체로 한국협동조합운동사에 길이 남는 장면이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은 신용협동조합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1961년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개량,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보급, 농기계 보급사업 등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되었고, 한편으로 박정희 정권은 수출을 통한 산업증대 전략으로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농촌에서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농약중독으로 인한 농민의 죽음을 불러왔으며, 도시에서는 무분별한 산업전략으로 인해 도심 하천의 극심한 오염과 대기오염 및 도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다. 또한 이 정책은 농업 인구의 급감과 도시 인구의 급증을 불러왔는데, 1975년을 기점으로 농업 인구가 48%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원주의 운동가들은 농촌과 광산 및 어촌 지역의 협동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성찰적인 시대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을 파괴와 죽음으로 내몰 뿐 아니라 인간을 개인주의화하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생명본연의 인식을 가로막는 산업문명과 기계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모색한 것이다. 장일순 선생과 박재일 선생을 필두로 1977년경부터 시작된 고민은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폭력적으로 자연을 침탈하고 인간과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현대 산업문명과 근대국가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간화와 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생명사상과 운동을 제창하게 된다.

“한살림 운동은 몇십 년 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70년대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반독재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종전의 말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악순환이 계속 되겠더라 말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마구 뿌리고 도시 산업화를 꾀하는 걸 보니 이 강토 전체가 황폐화되겠더라고요. 환경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군요. 6.3사태 이후에 원주에서 농촌운동을 하려고 한 박재일 씨와 77년부터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공동체 내지는 농토를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규모에서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123쪽

합할 것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한 포기의 배추에 있어서의 참된 생명력의 문제로부터 이론 물리학의 “장”의 원리나 철학에서의 범주론과 연표방식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그에 입각한 일체 인간과 자연생명계까지를 포함하는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200여 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알고 있다. 소농과 농촌공동체의 몰락, 농업자본의 독점화와 산업자본의 성장,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구를 과소비하는 도시와 도시문명의 역사는 곧 자본주의 역사이자 생명의 파괴와 죽음의 역사이다. 또한 우리는 근대의 또 다른 얼굴인 사회주의 운동의 시작과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기억한다. 국유화와 협동농장을 통해 인간의 자율을 억압한 사회, 자본 대신 국가독점과 테크노크라트의 지배를 통해 역시 인류의 진화를 막아버린 체제이다. 그것은 모두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기초해 있으며 기계론적 과학주의와 성장론에 기초한 산업문명이다.

현대 자본주의 동력이었던 화석연료는 종언을 고하고 있고 아직 새로운 에너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핵 발전과 핵무기는 지구적 차원의 행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세계인구는 70억을 넘어섰는데 기아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식량 생산과 분배는 위협받고 있다. 세계의 밀림은 이제 지구 표면적의 5%도 남아 있지 않으며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 1982년경 원주에서 발행된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에서 따옴. 이 문서는 김지하에 의해 기초가 잡히고 원주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교정을 보고 완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정신분열적 증상과 범죄 현상은 인류사회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의 위기가 도래해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화된 근대 국가권력이 통치하는 세계에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권력이 생명을 지키지 않음은 역사가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가 30여 년 전의 초기문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보다 대중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1985년 원주소비조합의 태동과 1986년 한살림농산의 설립 그리고, 1989년의 「한살림선언」이다. 그런데 초기문서에서 확인되듯 생명운동은 기본적으로 현대 산업문명과 이를 이끌어 온 이원론적인 근대 서구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자, 이기적이며 경쟁적인 개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 개인과 사회, 나와 너를 나누어 사고하는 이원론이자 주체철학의 폐해를 넘어서자는 이야기이다. 이 이원론이 끌고 온 사회의 모습이 곧 생명 파괴와 위기의 사회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뿌리 뽑힌 민중적 삶, 인간성의 상실, 폭력 숭배, 소비 숭배, 가학·피학 증세의 보편화, 인간 및 범 생명의 물질화, 테러리즘, 복수의 악순환, 이러한 집단적 정신 분열의 현상은 죽음의 옆얼굴이다. 이렇듯,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현상의 내부를 꿰뚫어 흐르고 있는 것은 생명 경시, 생명 파괴, 반생명의 악마적 경향이다. 이에 대응하여 역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

* 앞서 이야기한 원주에서 발행된 「생명의 세계관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서로 1982년경 완성된 것임,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출고 '생명운동의 형성과 전개' 참조. 이하에서는 '초기문서'라 칭함

규모에서 생명 회복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생명을 일체의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모든 문화,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것과 협동적 삶의 확장에 의한 개인 및 사회적 생명의 진정한 부활, 해방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문서의 개요)

또한 한살림선언은 산업문명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진단하고 있다.

- 첫째 핵 위협과 공포이다.
- 둘째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 셋째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이다.
- 넷째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이다.
- 다섯째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이다.
- 여섯째 중앙집권화 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이다.
- 일곱째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이다.

생명사상과 운동의 이러한 현실진단은 모든 운동에서 협동적 생존과 연대의 확장을 기초로 다양한 계층과 계급, 다양한 분야의 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진화와 사회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입장은 전통적인 서구 합리주의와 근대 사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탈근대적 입장은 협동운동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독점자본에 반대하는 소비조합을 넘어서 생명 본래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을 중시하고 생명 본래의 특질인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유기농업과 직거래를 강조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의 진화를 이루어냈다. 결국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을 적

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은 다양한 협동운동 가운데 제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운동의 한 형태이다. 다만 생명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운동은 근대적 시선의 반독점운동이나 이원론적인 근대사상, 자본주의의 시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산업 자본이나 유통자본과의 경쟁을 통한 성장이나 소비자의 편익과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운동이 인간과 자연을 같은 층위에서 같은 기원을 가진 절대 의존적 존재로 바라보며 그 중에서 인간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진화해왔고 진화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할 때,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협동운동은 협동운동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 활동 범주 내에서의 자연과 협동, 이웃과의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을 바탕으로 전국에 접속하고 세계에 접속하는 협동운동이다. 결국 생명운동의 가장 큰 본질 중 하나는 협동운동이자 공동체 운동이다.

그것은 소유영역에서의 협동(호혜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 영역에서의 협동(호혜적 노동과 생산), 교환과 거래영역에서 역시 협동(호혜적 거래)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운동을 상정한다. 여기서 호혜란 자연과 인간 사이의 호혜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호혜이다. 생명운동이 지향하는 협동의 방향이 서구 근대성 아래 진화해 온 대다수 협동조합과 비교해 갖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자연과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생명관계로 인식한다면 생산에 있어서도 유기농업과 같이

* 생활협동조합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하였지만 한국도 생명운동의 대중화 시점인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전통적 서구협동조합인 '소비조합'의 틀을 넘어서는 인식과 실천이다. 최근 서구에서도 생활(Life)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소비조합(Consumer Co-operative)을 사용하고 내용도 아직은 반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이로운 생산을 지향해야 하고, 노동 역시 끝없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족과 자급 그리고 생명활동이 풍요로운 노동을 지향한다. 거래관계 역시 자본주의 시장처럼 욕망의 실현을 위한 욕망의 거래가 아니라 자족과 검약을 바탕으로 한 최소관리비용을 포함한 직거래, 그리고 필요한 사람 또는 공동체와의 나눔, 지역화폐와 같은 공동체적 거래를 호혜적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구 협동조합은 한국의 생명협동운동이 지향하는 이러한 호혜성의 원칙에서 보면 한계와 결함이 많은 사례이다. 이를테면 몬드라곤복합체의 경우 생태적 관점의 결여, 성장주의적 관점과 시장에서의 경쟁, 조합 내 노동과 조합 외 노동의 차별 등은 그 수많은 성과와 진화에도 불구하고 생명운동진영에서 볼 때 결핍과 아쉬움일 수밖에 없다. 특히 몬드라곤 노동자들의 복지가 어딘가에서의 이윤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 내 어디일 것이다. 소비조합 분야의 최대 성공자로 종종 인용되는 스웨덴 소비조합 총연맹이 까르프를 인수했다는 점은 시장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점이지 이것이 곧 협동운동의 미래와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협동운동 진영에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트렌토나 볼로냐의 사례가 독점자본주의를 넘어서 민의 자립경제의 가능성을 점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이 전반적인 세계 시장의 동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와 생태공동체에 대한 접근철학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는 운동의 현실이 한국 사회의 현장에 위치해 있으며 탈근대적 생명사상에 기초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근대 협동조합이 사회적 소유 이론에 근거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적소유 이론이나 사회주의의 국가적 소유 이론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호혜적인 생산과 노동, 호혜적인 거래로까지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성장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근대협동조합으로부터 소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생산, 그리고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호혜적 협동운동으로의 진화는 일본과 한국의 협동운동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협동조합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위치에 와 있지만 서유럽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산력 진보에 기초한 성장주의, 자본과의 경쟁 끝에 위기를 맞았듯이 또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태내에 존재함으로서 자본주의 구심력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며 사상적 비전을 갖지 못함으로써 전술적 자립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유럽 협동조합운동의 퇴조에 대한 일본 협동조합 이론가 후루사와 고유의 다음 진단은 눈여겨 볼 만하다.

“현대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구미 선진 국가들에서는 현상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 특히 생협 활동이 크든 작든 곤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기존의 사회경제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에 대하여 대항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해 두고 싶다.

대항적이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생활방위적인 측면과 생활창조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종래의 협동

조합운동, 예를 들면 생협운동은 무엇보다 생활방위적인 면을 강하게 지니고 성립하였다. 가격의 안정이나 공정성, 품질보증,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폭넓은 지지를 얻어 온 것이다. 그래서 시장시스템이 그런 대로 유효하게 기능하고, 거기에서 경쟁 원리나 규모의 경제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면,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으로의 경쟁력은 자본력에 있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구미사회의 생협이 쇠퇴한 요인이었다.

단지 경제력에 있어서의 대항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협동조합은 상사(商社)에 대항하여 상사가 되고 슈퍼마켓에 대항하여 스스로 슈퍼마켓이 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시장시스템과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승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좌표축을 상정하여 독자적인 평가 기준이나 가치나 의미를 가진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든지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서구협동조합운동을 경제적인 운동이나 사회적 운동을 실현하는 운동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시장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상태에 따라 협동조합의 존립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UN과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사유와 분석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실의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대체제 전반의 위기로 볼 것인가?, 새로운 자본주의(협동조합적 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자본주의)로의 대체인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의 공생, 인간 간의 공생에 기초한 인간의 진화와 사회적 진화의 전환점으로 볼 것인가? 협동조합운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 2003년 생명문화포럼 자료집

인류와 우주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사상과 결합해 새롭게 진화해야 할 것이다.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을

그렇다면 생명운동과 현대 협동조합운동은 대립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응 관계에 있고 한국 사회의 최근 경험 이외에는 큰 접점이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은 서로 장단점을 흡수하며 함께 창조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생명운동의 입장에서 협동운동은 포괄적이고 진화적 관계의 연장에 있다. 생명운동진영은 서구 근대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과와 진화 과정을 배우고 학습해야 한다. 그렇다고 서구 근대협동조합을 따라가거나 사고를 퇴행시킬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간 협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명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짚어보고 대안운동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기계적 세계관을 넘어 유기적 전체로서 생명을 인식하며, 생명은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또한 생명은 순환적인 되먹임체제에 의해 활동하며 생명의 본질이 현상의 물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유기적 연관성 속에 존재하며 생명의 유지 역시 전체로서의 생명질서에 의존해 가능하기에 생명의 존재적 본질을 협동(공동체)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생명운동은 협동운동이지만 일원론적 인식에 기초한 협동운동이

고 자족과 자립의 협동운동을 지향한다. 그것은 직선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 이론과 차원을 달리한다.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반생태주의와 대립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모형으로 보는 행동과학이나 정신분석이론을 넘어 우주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발견해 낸다.

현대 협동조합은 사적소유를 넘어서 공동체적 소유와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명확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 협동조합운동은 또한 근대성의 한계에 갇혀 있음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운동사에서 수많은 협동조합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시장에서 사기업과의 경쟁이나 자본주의 기업을 흉내내다 이루어진 일임을 협동조합운동사는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대 서구협동조합운동의 경우 태동 시기의 폭력적인 산업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자구책으로서의 자립과 공동체적 열망이 근대협동조합운동의 문을 열었다면, 생명공동체운동은 21세기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끝 지점에서 서구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탈근대적 문제제기와 실천의 차별성이 있다. 물론 19세기와 21세기 사이에 협동조합운동 또한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생명운동과 창조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 무비판적, 무성찰적으로 번지는 협동조합운동이 자칫 서구의 근대 협동조합운동이 걸어온 간난의 길을 상당 시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생명운동의 시선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 답이 나와 있는 듯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만, 그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이 운동성과 정신을 놓치면 쉽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동기만 남아 경영주의로 흐르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무수한 단위농협들과 신협을 보면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일부도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 ICA에서 제정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개정해 온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협동조합이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정의와 가치, 원칙 또한 1995년 ICA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것이다. 협동조합들이 ICA가 정한 정의와 가치, 원칙만 충실히 준수해도 협동조합은 상당한 진화를 이룩하고 사회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부침을 거듭한 것은 개개 협동조합이 현실의 시장과 권력에 늘상 노출되어 있고 현실

*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풀 한 포기도 공경으로』, 1990년 6월 일본인의 방문을 받고 들려준 이야기, 일본관서기공협회의 기관지 『脈脈』 제 31호에 실린 것을 1997년 최성현의 번역으로 『녹색평론』 3-4월호에 재수록.

의 철학적 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협동조합 그룹(지역이든 부문이든)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창립자 정신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요한 임직원들은 ICA가 선언한 가치나 원칙들도 준수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창립자 정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로치데일 선구자조합은 창립정신을 8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몬드라곤은 호세 신부의 정신을 그들의 10원칙에 담아 지켜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협동조합의 포괄적인 정신이 있을 뿐 구체적 현실에서는 창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정신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협동운동 또한 다양한 설립주체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과 정신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실패를 포함해서 진행될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 민간 협동운동의 중요한 한 주류는 생명사상에 기반한 ‘생명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을 기점으로 시작된 생활협동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동공동체운동 등은 생명협동운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협동운동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되 다음과 같은 공통된 고유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과 자연의 신령스러움을 존중한다.

둘째, 운동의 현장을 지역으로 파악하고 지역에 다양한 생명협동 공동체경제를 만들고 확산한다.

셋째, 자율적인 사람, 자립적인 경제, 자치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물질적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진화를 도모한다.
다섯째, 생명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저항과 생명공동체를 실
현하기 위한 창조활동을 함께 지향한다.

이상의 가치들은 한국의 생명운동이 협동운동을 통해 경제적 목적
과 생활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자기정체
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을 통한 급
격한 변혁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를 필두로 한 사회의 변화를 모
색하는 민(民)의 생활운동이며 협동운동을 그 중심에 둔 적극적인 자
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확장과 연대의 생명공동체운동

생명운동은 반독점운동과 어떠한 관계여야 할까? 저항적 실천의
반독점 협동운동과 탈근대와 창조적 실천의 생명협동운동은 함께 가
야 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아직 현실의 환경상 진화하지 못한 영역과
현실의 문제를 넘고자 하는 적극적 진화여지의 차이 정도이다. 우리
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반독점운동으로서의 협동운동도 아직은 필
요하고 반(反)기계 문명 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도 필요하다. 협동운
동에 있어서 일종의 ‘기우뚱한 균형’이다. 그것은 생명운동의 입장에
서 보면 확장과 연대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확장운동은 주체를 중심으로 주체의 주변을 동화시킴으로서 넓혀나가는 운동이다. 연대운동은 옆으로 손을 잡는 운동이다. 생명운동진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생명운동을 창조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농산물 생산의 마을공동체운동, 가공의 생산협동조합운동, 생활상의 다양한 생필품의 자급 협동운동, 문화적으로는 도서관, 어린이집, 대안교육, 문화센터 등도 협동조합으로 모색할 수 있다.

연대운동은 생명협동운동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반독점 협동운동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공동체운동 일반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국가와 자본에 대응하여 저항하는 운동에 생명운동이 함께해야 하고, 시선은 다르더라도 지역공동체운동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동운동에 연대해야 한다. 또한 이미 생필품이 되어버린 설탕이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옷감에 대해 반독점운동의 일환으로 공정무역과 해외의 협동공동체 지원 운동을 함께할 수 있다. 특히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지 문제와 영농 주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농촌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지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어 농지 값이 급등한 현실은 영농후계와 귀농을 어렵게 함으로서 생명협동운동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지의 민 공유(民共有) 운동으로서 농지신탁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생명협동운동의 신기원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농지신탁협동운동은 그 자체로 생명운동진영의 확장운동 영역이며 동시에 반독점 협동운동진영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과 연대해야 풍성해지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명운동은 이러한 확장과 연대의 협동운동을 통해 다음 세상으로

질적으로 비약·포월(抱越)하는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초기부터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중운동, 특히 생명과 협동을 가치와 실천의 핵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은 마땅히 총체적인 연대운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농민회, 노조, 신협, 소협, 노청, 사선 등은 전체적인 운동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프로젝트 내용의 동일성과 호흡의 일치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운동을 동시에 집행토록 제도적 보장과 자금 지원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협의하여 찾아야 한다. 생명운동은 또한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영성운동이다. 따라서 여러 종교단체와 신구 기독교회 및 수도단체나 수양단체들과 협력,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른 행동단체나 일반사회단체 및 기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이것을 지식인, 청소년, 직업여성, 주부, 소시민, 상인, 군인, 학생, 언론인, 연예인, 실업인, 공무원, 문인, 예술가들 속으로 지속적,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외국의 민중운동 및 교회운동, 생명보호운동, 평화운동 등과의 연대 강화는 당연한 일이며 생명과 협동의 확장적 총체성이 그대로 요구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조건은 가장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영성적 차원의 변화, 영적 능력의 증대, 즉 생명에의 귀의, 의식화가 얼마만큼 빛나게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 앞의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본문 21쪽)

영성과 협동조합*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변혁적 협동운동을 위하여

주요 섭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왜 '영성'과 협동조합인가?

‘몬드라곤’과 ‘코프고베’와 ‘한살림’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무엇일까? 물론 답은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은 두말할 것 없는 세계적인 협동조합 복합체이고, 코프고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생활협동조합이며, 한살림은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 중 하나이다. 그렇다, 공통점은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셋은 모두 성공적인 협동조합 모델임과 동시에, 영혼이 살아있는 지도자와 사회화된 영성을 지니고 있다. 몬드라곤의 돈 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톨릭 영성, 일본협동조합운동의 아버지로 숭앙받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 『모심과 살림』 0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2

와 기독교 영성, 그리고 한살림과 원주협동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무위당 장일순의 모심(侍) 생명사상이 그것이다.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데 왜 영성(spirituality)*일까?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 협동운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사업의 규모나 경영적 효율성보다 정신, 영혼, 혹은 영성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는 것 아닐까?

2012년 오늘 한국의 협동조합 봄이 우리 삶과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그 핵심 동인은 무엇일까? **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이후 대안적 경제시스템과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협동조합운동 혹은 협동운동***의 본령은 무엇일까?

‘탈근대’와 ‘자본주의 이후’ 나아가 ‘문명사적 전환기’가 공론이 되고, 학교, 정당, 대의민주주의, 주식회사, 노동조합 등 근대적 건축물이 낡고 늙은 것이 되거나 괴물이 되어가는 오늘, 1844년 로치

* 영성이란 지성, 감성과 구별되는 의식의 깊은 차원을 말한다. 고금의 종교인과 철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해방신학의 창시자인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말을 빌려 보자. “영적인 것이란 작은 나의 세계를 우주적인 세계에 연결시키고, 전체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초월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76쪽.

**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협동조합 신드롬이 심히 우려스럽다.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서 협동조합의 자조·상조의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에 뒤이어 또 하나의 ‘국가복지’ 전달체계, 혹은 관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업주체보다 정부주도형 지원조직만 활성화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도 문제다.

*** 협동조합운동인가 협동운동인가 하는 문제는 쟁점 중 하나이다. 필자는 넓은 의미의 협동운동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물론 협동조합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협동운동의 형태인 것은 분명하나 향후 협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살림의 경우 협동운동이라고 말해야 타당하다. 직거래매장(1986)-소비자협동조합(비법인, 1988)-비영리사단법인(1995)-생활협동조합법인(2002~)으로 바뀌어온 조직형태의 변화사가 그것을 증거한다.

데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대략 170여 년이 지난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되살아난 협동조합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몬드라곤 협동조합 지도자의 말대로 협동조합이 단순한 법적 구조가 아니라 경제사회철학이라면, 그 철학, 즉 협동조합의 본질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의 영혼(spirit)은 무엇일까? 마치 ‘만유인력(萬有引力)’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협동조합과 영성 : 몬드라곤과 코프고베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보이는 힘’은 탐욕의 신(神), 화폐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동조합도 결국 사업규모에 의해 존재감이 인식된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는 진정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힘’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사람들의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성패는 결국 ‘사람들’에 달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자발성과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운동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영적인 에너지, 혹은 아우라가 같은 게 느껴진다.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오언의

박애주의와 ‘새로운 사회(New Society)’에 대한 열망, 덴마크 협동 공동체운동과 독일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에서의 기독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협동조합운동과 가톨릭의 역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으로 건너온 협동조합운동도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도저한 기독교 영성에 의해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정신성과 종교적 영성은 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 아니었을까?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사를 일별해보면 그 아우라가 더욱 확실해진다. 일제하 천도교(동학) 계열의 농민협동조합인 공생조합운동, 덴마크에 지도자를 파견하며 배워온 YMCA(기독교청년회)의 소협운동과 농민조합운동, 원불교의 간척사업과 협동공동체 등은 놓치지 않아야 할 한국 협동운동의 뿌리이다. 또한 현대 한국의 생협운동 및 신협운동에서도 종교적 배경이 탄생과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멀리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흥성의 풀무학교와 협동공동체들, 1970년대와 80년대 가톨릭의 지원 속에서 성장한 원주와 강원도의 협동운동,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듯 1960년대 초 가톨릭 수녀님과 신부님에 의해 시작된 한국 신용협동조합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한다.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 개신교의 민중교회운동이 시도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실험도 잊지 않아야 할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요컨대 국내의 협동조합운동의 태동과 성공의 이면에는 종교적 영성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몬드라곤과 일본의 생협운동이다.

1. 몬드라곤과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가톨릭 영성*

2010년 현재 총자산 331억 유로, 총매출 140억 유로, 수출액 36억 유로. 노동자 83,859명이 종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협동조합복합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세계적인 롤모델로 떠올랐으며 명실상부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보통명사가 된 몬드라곤 이야기다. 1956년 5명의 초급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조그만 곤로공장에서 시작해 수많은 협동조합 기업군(群)과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몬드라곤은 이미 하나의 경제공화국이다.

이와 같은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신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스크 민족주의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의 역사,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인민금고의 역할, 탁월한 경영전략 등 여러 요인들이 오늘의 몬드라곤을 가능케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은 돈 호세 마리아 아리즈멘디아아리에타(1915~1976)라는 긴 이름을 가진 가톨릭 신부의 존재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관련하여 평생 아무런 직책을 갖지 않았으나, 그는 몬드라곤의 그루(스승)이었고 도덕적 사업적 조직적 멘토였다.

캐나다의 저명한 몬드라곤 연구자인 그레그 맥레오드는 몬드라곤의 사상적 원천을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 교회의 전통이다. 자본

* 몬드라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를 중심으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역사비평사, 2012)와 관련 논문 등을 참고했다.

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배척했으며, 경제를 매우 심오한 인류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둘째는 바스크 사회의 전통인 단결과 근로정신, 셋째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의 통제도 거부한다. 넷째로 마르크시즘과 자유주의 대안으로써 ‘인격주의(personalism)’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원칙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몬드라곤의 사상적 핵심요소는 유대-기독교 가치라는 것이다. 몬드라곤이 이타적인 공동체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복합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인간, 전인격적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인격이란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인격’을 말한다.

돈 호세 신부에게 유일한 ‘주의(ism)’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이다. 사랑의 원리가 실현된 삶과 사회. 신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심지어는 협동조합주의마저도 거부했다. 모든 이념적 실천 속에서 지혜를 깨우쳤고, 동시에 모든 이념을 넘어섰다. 이념은 교과서가 될 수 없었다. 신부는 이념이 아니라 다른 ‘삶의 양식(way of life)’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날 수 있었다. “몬드라곤 시스템의 진수는 소비자나 생산자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하나의 복합체 조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립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 양측의 경제적 균형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생

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은 필요의 충족이기도 했으나 이타적 마음, 곧 사랑이라는 종교적 영성이 없다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나 지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몬드라곤은 국가와 자본을 넘어 경제와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사회적경제’ 모델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돈 호세 마리아 신부는 궁극적으로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온전한 인격,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격으로 드러난 신격에 천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거룩한 인간주의’인 것이다.

돈 호세 마리아 신부는 말년에 학교 교정의 탑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신부는 탑 위에서 땅 위에 실현된 사랑의 공화국을 지그시 내려다보곤 했을 것이다. 몬드라곤에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다.

2. 일본의 생협 운동과 가가와 도요히코의 기독교 영성*

돈 호세 마리아 신부가 태어날 즈음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베의 빈민촌에서 전도와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동, 농민, 협동조합 등 일본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의 아버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1888~1960)가 오늘날 140만 세대의 조합원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생협인 ‘코프고베’를 설립한 때는 1921년이였다. 세계 3대

*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46쪽

* 가가와 도요히코는 『우애의 경제학』(그물코, 2009)을 중심으로, 『일본생협운동사』 등을 참고하였다.

협동조합사상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그는 실로 동아시아의 간디라 할 만하다. 간디가 그러했듯이 그는 사회운동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또 수행자였다. 미국에서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였고 수행자로서나 봉사자로서나 평생 예수처럼 살기를 원했으며 또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협동조합운동은 사랑과 형제애라는 기독교의 이상과 합치한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우애의식의 부활, 기독교적 형제애의 부활이다.”

가와와 도요히코는 협동조합을 정신적인 운동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종교적 경제관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일본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대부였던 가가와 목사에게 형제애와 우애의 부활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인민들과 사회와 국가의 길이였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형제애의 행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국가를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꿈꾸었다.

코프고베의 모토는 ‘생활과 협동’이 아니라, ‘사랑과 협동’이다. 협동의 기초는 사랑이며 사랑 없는 협동은 팔소 없는 찌뽕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사랑과 협동’의 정신은 코프고베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자의 이익을 좇을 일이 아니다. “만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사회에 조화가 태어나리라. 이것을 우리는 사회단위(social unit)라 부른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된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생산-소비 협동을 기대했다. 돈 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이렇게 둘이 아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우애의 경제학』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제까지 발달하지 못한 본능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아왔던 경제 활동의 모두를 속죄애의 의식적 행위로 정화하고 합리화할 것을 하나님-의식은 촉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상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경제활동을 현상 그대로 방치하면 세계평화는 결코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는 1936년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던 시대였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본능 영역에 속해 탐욕의 포로가 된 경제를 ‘사랑의 선물’로 재정의 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경제의 이면,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과 이 땅에서의 실현. 가가와 도요히코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다.

협동조합과 경제의 전체성과 음양론

그렇다.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의 비결은 반딧불이처럼 투명한 두 영혼이었다. 경제적 편익만을 쫓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열망했다. 밥과 동시에 신기(神氣)를 구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전면적인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협동조직의 모델을 만들었다.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경제적 성공의 떡고물을 나누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식회사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에 밀려서 로치데일 방식의

협동조합은 20세기 초 중반 그 의미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협동운동의 지평을 연 일본의 협동운동과 몬드라곤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힘이 바로 가톨릭 영성과 기독교 영성의 사회화에 있었던 것이다. 만약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와 돈 호세 신부의 영성적 지도력이 없었다면 그 조직들은 지속가능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의 경제주의적 협동조합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몬드라곤과 일본생협의 규모와 경영기법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정신, 영혼, 영성이다. 협동조합의 전모,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무엇, 사람들(association)과 그 사람들의 열망(aspiration)을 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 안에 숨겨진 삶의 전체성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다.

1. 협동조합, 필요와 열망의 전체성과 음양론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발상 자체가 그렇거니와 이후의 협동조합 역시 경제적 필요를 협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꾀했고

*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필자의 입장은 일본의 협동조합 이론가 이와미 다카시(石見尚)의 '제3세대 협동조합론'과 그의 영향을 받는 오래된 문고판 서적에 근거한다. 20년 전, 『세계의 협동운동』(신협중앙회, 1991)의 지적이 간단치 않다. 16쪽. “개인의 전 생활 가운데 주로 시장경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제 1세대와 같이 참가자의 생활을 공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고립해 있으면서 경제생활의 일부를 분야별 기능별로 합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공동사회 건설이 아닌 공리주의에 기초한 기능의 공동화로 영어의 cooperative라는 의미 그대로였다. cooperative란 용어는 협동조합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 2세대의 공리주의적 조합활동에서 발생한 명칭이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정하게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필요의 충족’, 즉 공동의 경제적 편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대안적 생활공동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협회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협동조합은 대개 자본주의적 소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오웬을 비롯한 1세대 협동운동의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고심의 결과가 담긴 것이 바로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 아닐까?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의에 언급된 ‘열망’의 배경이 아닐까?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그들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needs)와 열망(aspirations)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association)이다.”*

널리 알려진 ICA의 1995년판 협동조합의 정의이다. ‘사업체’와 ‘결사체’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특히 김기섭의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필자에게는 결사체와 사업체보다 ‘필요’와 ‘열망’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바로

* ICA의 협동조합 정의는 여러 번역본이 있으나 여기서는 김기섭의 번역을 따랐다. 『깨어나라 협동조합』(2012). 단 ‘aspirations’은 염원, 기대, 바람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필자의 감각을 좇아 ‘열망’으로 바꿔 썼다. spire의 어원상 숨쉬다. aspire는 a+spire, 즉 무엇인가를 향해 숨쉬는 것. 참고로 conspire는 공모로 번역되는데, com(together)+spire ‘함께 숨쉬다’라는 뜻이다.

** 김기섭의 논의란 『깨어나라 협동조합』의 내용을 말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에 관한 한 사실상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다.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로 갈고닦은 김기섭의 논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김지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호혜·교환·재분배론과 노동에 대한 설명 등은 거의 대부분 공감한다.

여기 ‘열망’ 속에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열망의 재발견, 아니 필요와 열망의 역동적 음양론에 더 가깝다. 사업체와 결사체의 역동적 음양론이면서 동시에 필요와 열망의 음양론이다. (변증법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개벽, 이면에 숨겨진 열망과 열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되살려야 한다. 협동조합의 전체성은 열망의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사업체는 필요에 대응하고 결사체는 열망과 짝을 이룬다. 그러므로 필요-사업체와 열망-결사체의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이 협동조합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서 흔적만 남은 협동조합의 반쪽, 아니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깊은 열망을 되살려야만 21세기 새로운 차원의 협동조합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말이다. 오웬이 평생을 염원하고 수많은 대안공동체들의 실천해 왔던 그 ‘더불어 삶’의 열망이 없이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의 지렛대가 아니라 그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받침대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본의 결합이나 사람의 결합이냐에 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고 협동조합은 필요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는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공히 사업체로서 공동(조합원)의 필요 혹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렇다

* 변증법이 아니라 음양론이다. 정반합이 아니라 내재하는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이다. 여성 안에 남성이 있듯이, 빛의 성질이 파동이면서 입자이듯이. 심지어는 모순, 창과 방패마저도 공존하는 것이 음양론이며 불연기연(不然其然)이며 불일불이(不一不二)다.

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열망의 현현(顯現)’에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본래적으로 주식회사의 열망은 이윤, 즉 자본의 유평피아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 열망은 더불어 숲이다. 박애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유평피아, 나아가 모든 생명이 어울려 함께 사는 생명의 숲이다.

숲 가꾸기로 유명한 한 기업체의 광고가 떠오른다. “사람들이 창가에 화분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맞다. 기분이 좋아지니까도 맞다. 꽃이 예뻐서도 맞고, 건조 방지를 위해서도 맞다. 하지만 그 광고의 답은 다르다. “내 마음 안에 숲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열망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열망, 나누고자 하는 열망, 이것은 윤리 이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열망, 생명세계의 본성이라는 말이다. 자비와 사랑과 인(仁)의 그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우주론적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는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말한다. “이 세계는 객체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의 영적 친교(communion)이다.”

더욱이 문명사적 전환기, 21세기 협동운동이 나아갈 바는 필요의 충족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영성사회, 모두가 자기실현하는 창조사회의 길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정의 속에 있는 ‘열망’의 숨은 뜻 아닐까?

일본생협운동에서도 가가와 도요히코의 정신과 열망은 희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오늘 쿠프고베의 소개문은 열망의 의미,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은 깊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조합원의 생활을 지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모두의 힘을 모아 각자의 소원과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코프고베는 ‘사랑과 협동’의 정신을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필요(생활지원 풍요)와 열망(소원과 꿈을 현실로)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코프고베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영적인 안정을 위해, 생협을 기본적인 사명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원이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열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 ‘사랑’이다. 사람들의 마음 한 켠 오롯이 남아있는 더불어 삶의 꿈, 나아가 자기실현과 우주와의 합일을 꿈꾸는 깊은 내면의 열망 말이다. 협동조합 안에서 개인의 꿈과 소원을 모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물품과 활동 안에서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따듯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생협 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영혼은 ‘더불어 삶’의 열망이다.

2. 경제, 교환과 호혜의 전체성과 음양론

협동조합은 필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조직이다. 예컨대 생활협동조합에서의 경제행위는 주로 물품의 공급과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장 안에서 생협물품은 화폐를 통해 상품처럼 판매

* 쿠프고베 홈페이지. www.coopkobei.org

된다. 매장이 작은 상품시장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있다. 하지만 그 물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요공급의 논리가 아닌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껴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의시스템만으로 상품시장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필자의 결론은 “아니다”이다.)? 그럼 전통시장의 가격 흥정도 협의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협동조합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 머물 것인가? 밖을 향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차피 시장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경쟁력을 높여 주식회사를 이기는 길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시장 밖에서 비시장적으로 협동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1세대 협동운동이나 70년대부터 시작된 급진적 생태공동운동의 선택지였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블랙홀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초강력 중력장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제 3의 선택은 가능할까? 무엇일까?

그 해답은 필요와 열망의 음양론에서 이미 암시되었듯이 경제관계의 보이지 않는 면을 재발견하는 데 있다. 교환과 호혜의 음양론이 그것이다.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는 ‘교환과 증여의 복(復)논리’라고 말했고, 한국의 시인 김지하는 ‘호혜와 교환의 융합’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잃어버린 호혜의 마음, 즉 증여-답례의 마음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말

* 한국과 일본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시인이자 사상가로, 종교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두 사람, 둘 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김지하 시인의 『춤추는 도깨비』와 여러 저작들, 나카자와 신이치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대청성 인류학』 등을 참고했다.

이다. 상품 안에 내재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에 머물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분석이라면, 거기서 더욱 파고 들어가 생명세계의 증여-답례의 마음, 필요의 교환 안에 숨겨진 호혜의 열망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전일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현상이 교환의 원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와 순수증여라는 다른 두 원리와 단단히 묶여 있는 전체성을 가진 운동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카자와 신이치에 따르면 경제인류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이전까지 모든 경제관계는 한마디로 교환/증여의 이중적 관계였다고 한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품을 교환할 때에도 물품과 더불어 호혜의 마음과 인격, 나아가 물품에 묻어있던 영혼까지도 함께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시장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지만, 시장교환과 화폐거래의 이면에 마음과 인격이 함께 오고갔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일부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러하듯이, 전통시장의 에누리와 흥정과 외상 안에 인정이 묻어있듯이 말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최고의 수준인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인가? 농업(노동)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다. 자본주의 이전 농민들에게 한 알의 씨앗에서 생산되는 풍성한 농작물은 땅의 선물이고 하늘의 축복이었다. 작은 수고로도 온 가족과 공동체를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자연이 주는 선

*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4), 214쪽

물 즉 증여의 결과였다. 우주의 거룩한 힘이였다. 당연히 농민의 땀과 노동은 아름답고 신성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의 농업(노동)은 달랐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가 동원되고,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노동 및 자본 투입의 결과물이었고 더 이상 자연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개발(약탈)의 대상일 뿐이다. 공업생산물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하늘에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자본을 숭배하며 자신의 투자 및 경영능력을 믿을 뿐이다. 노동력과 함께 인격마저도 사고팔리니 그 땀과 노동은 고통일 뿐이며, 오로지 화폐가치로만 평가된다. 시장(교환과정)에서 인격과 영혼과 감사의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이 되었다.

협동조합 경제는 잃어버린 증여-답례의 주고받기, 즉 호혜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보이지 않는 힘이며, 협동조합의 영성이 아닐까? 그 때문에 돈 호세 마리아 신부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협동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경제적 합리성으로 포장된 물인격과 물영성적 화폐관계, 상품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제의 전체성, 교환/호혜의 복논리를 회복하는 게 협동운동의 진정한 과제 아닐까? *

예수의 포도원에서는 노동의 법이 다르다. 아침에 온 일꾼에게나 오후에 온 일꾼에게나 같은 액수의 보상을 한다.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다. 생명의 무게를 측정할

* WHO(세계보건기구) 일찍이 0000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에 주목하였듯이 이후의 경제학은 영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 없듯이 생명활동으로써 노동은 그 하나하나가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생명의 인드라망을 출렁이게 하는 우주적 사건이다.

또한 호혜는 받고주기가 아니라 주고받기이다. 신약성서는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하라고 강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한다. 동아시아식으로 말하면 천지부모의 은혜가 생명공동체의 전제조건이다. 자연은 증여 없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웃사랑은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양식이며 인간 내면 깊은 곳 존재론적 열망인 것이다. 그래서 호혜는 ‘받고주기’가 아니라 ‘주고받기’인 것이다. 이것은 곧 공동체의 지속가능 원리이기도 하다. 신뢰에 기반해 주고받기의 호혜적 순환적 고리*를 이어감으로써 공동체의 생명력은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교환과 호혜의 음양론이다. 호혜의 열망은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교환을 통해서 실현된다. 김지하 시인이 불교에서 발견한 자리아타(自利利他)가 그것이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 되는 관계. 예컨대 밥/쌀을 매개로 연결되는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의 관계가 그러하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곧 소

* 상품교환의 과정을 통해 돈도 돌고 물건과 자원도 돌고 돈다. 그런데 호혜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순환이 일어난다. 『석기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살린스라는 인류학자는 이를 ‘대칭적 호혜’와 ‘일반적 호혜’로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다(『폴라니의 경제사상』 참조).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집에 B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를 ‘증여(주기)’다. 그리고 이에 대해 B가 A에게 답례로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를 ‘받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쌍방 상호간 동등한 가치의 주고받기를 ‘대칭적 호혜(balanced reciprocity)’라고 말한다. 그런데 A가 B에게 대접을 하지 않고 C라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C는 D에게 D는 G에게... 이런 식으로 돌고돌아 Z라는 사람이 다시 A에게 대접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일반적 호혜(generalized reciprocity)’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호혜의 순환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신뢰의 공동체란 바로 이러한 호혜적 순환의 공동체를 말한다.

비자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밥상을 살리는 일이 된다. 호혜적 교환이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이 아니다. 이제 ‘자리이타’는 ‘이타자리(利他自利)’로 깊어진다.

또한 <화엄경>에 나오는 ‘동진불염(同塵不染) 이생상도(利生常道)’의 경지다. “장바닥의 먼지는 함께 뒤집어쓰되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생의 삶을 이롭게 하는 항상된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다. ‘장바닥에서 먼지를 함께 뒤집어쓰’는 교환을 의미하고, ‘탐욕에는 결코 물들지 않음’은 호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교환 안에 내재된 호혜의 마음인 것이다.

요컨대 열망은 욕망의 지극한 상태이며 욕망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돈을 주고 산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마스의 밤은 교환의 원리와 증여의 원리가 사라고로 뗏어지는 것이다.” 증여와 교환은 “살을 맞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3. 호혜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호혜와 교환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의 깊은 바닥엔 ‘신령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거꾸로 호혜의 마음이 사라지면 오늘날 마트와 백화점에서 보는 탈인격화된, 영혼 없는 공리주의적 경제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혹 협동조합의 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열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협동조합의 얼굴을 한 자본주

의 기업일 뿐, 협동공동체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유심론이나 관념론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전체성의 회복이다. 영(靈)과 육(肉)을 분리시키지 않는 전체로서의 영성이다. ‘경제인간’을 넘어서 전인격적 인간의 귀환이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개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들이 모두 평등한 이들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인류 형제애의 교리는 인격적 개성이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체의 실체는 바로 개성적 인격체들의 관계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이다.”*

폴라니에게 (자본주의의 극단인) 파시즘의 본질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질은 독점이나 불평등에 있지 않다. 여기서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인격주의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의 형제애와 폴라니의 영혼이 있는 인간이 만난다. 그러므로 뺏속까지 상품화된 자본주의시대,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영성적 협동운동이 혁명이다. 물품 안에서, 심지어는 돈(화폐) 안에서 명령한 마음을 보는 것이 새로운 비전이다. 바로 이것, ‘직관(intuition)’이다.

협동조합에서의 영성,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물품 안에 녹아든 농민들의 땀을 느끼고 정성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떤 협동조합이든 그 크기가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삶을 나누고 있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언

* 『거대한 전환』 621쪽 홍기빈의 해제에서 재인용

젠가는 밥 한 그릇으로부터 생명세계를 깨닫고 우주의식과의 소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에 숲이 있음을, 숲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가가와 목사와 호세 신부의 하느님 나라 아닐까? 이때 협동은 생존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근원적 존재양식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다. 축산농민과 채식을 명상할 때,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협동조합은 생명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의 무게를 넘어서 농민과 여성의 마음 깊은 곳 생명 감각과 연민이 일어나고 깊은 명상을 통해 “내가 곧 너”임을 알아차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서양 수행공동체의 오랜 경구처럼,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영성적 협동사회의 구상

경제의 전체성과 영성에 대한 통찰은 더 이상 담론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미 많은 대안적 사회운동과 협동운동이 협동공동체와 영성공동체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인도의 사회적 수행공동체 아난다마르가의 프라우트이론이 정교하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찍이 30년전 원주에서 전통적 사회운동으로부터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생명사상에 기반한 협동운동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고 있다.

영성적 전체성(spiritual wholeness)과 협동적 삶(cooperative life)은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두 개의 열쇠말이다. 밥상공동체와 영성공동체의 음양론, 혹은 협동적 삶과 영성적 삶의 통합이다. 필요의 충족에 기초하는 영성의 실현, 생태적 삶의 바탕 위에 영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을 꿈꾼다.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지금 여기서 실현한다.

1. 사카르의 영성적 협동사회*

사카르(1921~1990)는 인도의 수행자이자 영성적 사회혁명가였다. 탄트라 수행법을 바탕으로 ‘지복(至福)의 길’이란 뜻을 가진 사회적 영성공동체인 아난다마르가를 창립하고 평생을 이끌어왔다. 1971년 투옥되어 6년 동안 투옥생활을 했는데 수년 간 하루에 물을 섞은 요구르트 두 잔만을 마시며 단식으로 저항과 수행을 병행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1959년에 사회적 대안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프라우트(PROUT)’였다. 프라우트는 ‘진보적 활용론’으로 번역되는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라는 영어 머리글자들을 엮어 만든 말이다.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 공황과 자연환경의 급변에 대비하여 마스터 유닛(Master Unit)이라고 하는, 자급자족과 지역경제 활

* 사카르와 프라우트 이론에 대한 기본자료는 주로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물병자리, 2008)에 의지하고 있다. 이 책의 역자인 다다 칫따란잔아난다는 한국 출신의 아난다마르가 성직자로서 『자본주의 종말』(물병자리, 1997)의 저자이며 『공동체의 경제』(녹색평론사, 2001)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프라우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경제 분석서로 “미 비즈니스제국의 몰락, 그 다음 세상”이라는 부제가 달린 『뉴골든에이지』(리더스북, 2009)란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성화를 목표로 하는 삶의 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아난다마르가는 인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호주, 아프리카 등 지구 곳곳에서 ‘명상’과 ‘협동조합’을 무기(?)로 새로운 사회와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카르는 사회진보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한다. 그 기본조건이 육체적, 정신적 필요의 충족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필요조건일 뿐이다. 존재의 또 다른 영역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사카르의 사회적 비전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너머 “영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체제”이다. 그리고 그 경제적 기초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고 경제시스템의 핵심적 토대가 된다. 프라우트 경제시스템은 피라미드형 구조로써 즉 피라미드의 맨 아래 부분은 공공경제, 중간 중소기업의 경제단위는 협동경제(사회적 경제), 맨 위의 소규모영역은 시장경제로 구성된 산업구조이다. 이를테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협동조합경제의 공존이다.

사카르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기업과도 다르고 강제적인 집단화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체제의 그것도 구별된다.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시스템은 ‘종속적 협동(subordinated cooperation)’

* 프라우트 이론은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해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1. 개인은 소속 공동체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물질적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2. 우주의 모든 감각적, 초감각적, 영적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3. 인간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지닌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영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감각적, 초감각적, 영적인 잠재성을 활용할 때는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한다. 5. 활용방법은 시간·장소·사람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며, 진취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을 통해 운영되고 관리자가 노동자를 감독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와 달리 프라우트의 협동조합은 ‘대등한 협동(coordinated cooperation)’에 기초해 경제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를 결합시켜 부와 권한을 조합의 각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산시킨다.

삶의 전체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해서도 안 되고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인간사회 전체 및 개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열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카르의 사회적 비전은 자본주의 너머에 있다. 물론 사회주의도 넘어서고 있다. 그 출발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상이다. 이제 인류는 개인의 물질적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되, 경제적·물질적 성장욕망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신적·영적인 면에서 무한성장을 향해 가야 한다. “균형을 회복한 물질적·정신적·영적인 차원들이 상호 결합되어 건전하고도 전일적인(holistic) 사회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2. 모심의 생명사상과 한살림 협동운동*

“전 인류와 전 생명계에 찬란한 부활을 가져다 줄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

* 생명사상과 한살림 협동운동에 대해 충분히 다루기에는 지면이 좁다. 여기서는 1980년대 초 생명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협동운동의 탄생과 그 의미를 적는 것으로 줄인다.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엮은 [스무 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그물코, 2006)와 [한살림선언/다시읽기](도서출판한살림, 2011)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하기 위해 ‘존엄한 생명의 존중과 사랑’이라는 보편 진리를 생활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새롭고도 폭 넓은 세계관을 창출해내야 하며 영성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새로운 생존양식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인간과 자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결정적인 친교와 평화를 성취시킬 생명의 세계관, 생명의 존재양식을 출현시켜야 합니다.” *

벌써 30년 전의 글이다. 1982년 김지하 시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을 비롯한 이른바 ‘원주캠프’가 검토하여 세상에 내놓은 운동 팜플렛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란 문건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일명 ‘원주보고서’라고 알려진 이 글에서 그 당시 원주의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운동의 전환을 천명한다.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에 처음 나온 문건이기도 하다.

원주보고서는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영성을 지닌 살아있는 ‘한’ 생명임을 천명한다. 장일순이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을 빌려 말했듯이 “천지만물 가운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은 존재가 없다(天地萬物莫非侍天主).”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거룩한 한 우주인 것이다. 서울역의 노숙자도, 매일 마주 하는 밥 한 그릇도, 심지어 돌맹이와 풀 한 포기마저도 우주생명을 모시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세계관과 철학이 곧 ‘모심(侍)’의 생명사상이다.

원주캠프의 사상적 ‘대전환’은 새로운 차원의 협동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알려져 있듯 1985년 원주소협을 창립하고 1986년 서울 한살림농산을 설립하면서 생명사상에 기반한 협동운동을 시작하기 전, 이미 197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운동이 전개된 바 있다.

*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펴낸 [생명운동자료모음]에 실려있다. 강조는 필자.

원주캠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좌장인 장일순과 원주캠프의 실무기획 및 프로그램을 총괄한 김영주, 오랫동안 협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펼쳐 왔으며 나중에 한살림을 창립한 박재일 등 원주의 사회운동가들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협동, 생산협동, 구매협동 등 여러 가지 협동사업을 실험했다. 그런데 결국 신용협동조합을 빼놓고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탄광산업의 쇠퇴, 이농현상, 정치적 탄압 등이었지만,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운동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새로운 탐색의 결과로 나온 문건이 ‘원주보고서’였던 것이다.

이제 원주캠프는 새로운 협동운동, 영성적 협동운동을 준비하게 된다.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협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생산·소비 공동협동이 모색되고, 생산-소비 협동의 매개인 먹거리도 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된 쌀/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먹거리로 바뀌게 된다. 물론 농업도 화학농업에서 생명농업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도농직거래를 비용절감과 가격인하라는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호혜적 관계의 복원으로 이해하게 된다. 교환 속의 호혜혁명이다.

그리고 “생산자 코뮌과 소비자 코뮌의 협동”이라는 세계 협동운동의 오랜 이상이 한살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산·소비 공동참여형 협동조직모델로 탄생하게 된다. 농민은 농민끼리 광부는 광부끼리, 소비자운동 따로 생산자운동 따로, 각 협동조합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 경쟁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살리는 새로

은 차원의 협동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성적 협동공동체의 의미는 ‘한살림’이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 한살림이란 말 그대로 ‘함께 살기’, 협동적 삶을 뜻한다. 하지만 한살림의 ‘한’은 전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 하나하나의 개체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개체성은 전체성을 담고 있는 개체, 즉 무위당 장일순의 또 다른 호인 일숙자(一粟子)의 그것처럼,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인 것이다. 합일(合一), 즉 우주 영성적인 ‘하나됨’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변혁적 협동운동을 위하여

영성은 추상적이지 않다. 영성은 시대적이다. 몬드라곤은 파시즘에 대한 바스크공동체의 저항이었으며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은 일본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또한 모심의 생명사상은 탈빈곤의 생존권적 생명권과 반독재의 자유권적 생명권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그 바탕엔 사랑의 영성이 있었고, 그 드러난 모습이 협동조합이었던 것이다. 사카르의 영성적 협동사회와 한살림의 생명공동체운동은 자본주의의 파괴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전위적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영성은 래디컬(radical)이다. 공동체의 눈물이 ‘나’의 슬픔이요, 생태계 파괴가 곧 ‘나’의 아픔이다. ‘나’의 영혼을 부정하고 삶의 전체성을 해체하는 자본의 논리를 용납할 수가 없다.

생명과 영성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업보로 인해 이미 이 세계는 종말을 치닫고 있다. 세계화의 역설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없는 시장포화시대,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기후붕괴와 핵기술은 지구생명공동체의 절멸을 재촉하고 있다.

원주캠프의 대전환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전환'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지속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희망은 오로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환이 희망이다. 영성적 삶, 생태적 삶, 그리고 공동체적이며 협동적인 삶으로의 전환 말이다.

그렇다면 협동운동 역시 삶과 사회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회적 전환운동에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잘 먹고 잘사는 협동조합을 넘어서 삶과 사회를 바꾸는 협동운동으로 가야 한다. 요컨대 '변혁적 협동운동'이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삶과 사회를 바꿀 것인가? 변혁적 협동운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경영 능력과 사업 규모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20세기 사회변화의 동력이 생산력과 계급투쟁이었다면, 21세기 협동운동의 새로운 비결은 영성이다. 1세대 협동조합운동의 전체성을 되살리면서, 2세대의 경제적 합리주의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3세대의 그것은 영성에 기반한 협동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혼이 있는 협동운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영성이란 '더불어 숲'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다. 공동체성 따로 생태적 감수성 따로, 영성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공동체성, 내 안에 있는 자연, 내 안에 있는 우주생명을 깨달음으로써 전일적 삶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빵과 말쑥은 둘이 아니다. 먹어야

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나 항상 들어가 있는 찌빵 안의 팔소처럼 빵 안에 말쑼을 담아야 한다. 거꾸로 밥 한 그릇 안에 담겨진 생명세계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종말이 운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를 예비하는 협동운동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영성, 모심의 영성을 기반으로 체제 유지의 협동운동이 아니라 체제변혁의 협동운동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환. 1991. 『세계의 협동운동』.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김지하. 2010. 『춤추는 도깨비』. 자음과 모음.
- 김지하. 2003. 『생명학1·2』. 화남출판사.
- 김기섭. 2012. 『깨어나라 노동조합』. 들녘.
- 나카무라 히사시. 1990. 『공생의 경제 생명의 사회』. 도서출판한살림.
- 나카자와 신이치. 2005. 『대청성인류학』. 동아시아.
- 나카자와 신이치. 2004.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 가가와 도요히코. 2009. 『우애의 경제학』. 그물코.
- 다다 마헤시와라난다. 2008.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물병자리.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안다』. 그물코.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1. 『한살림선언/다시읽기』. 도서출판한살림.
- J.R.스탠필드. 1997. 『칼 폴라니의 경제사상』. 한울아카데미.
- 그레그 맥레오드.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칼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 사이토 요시아키.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그물코.
- 이와미 다카시. 2003.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실험*

조 완 형 |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들어가며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협동해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세상을 꿈꾸며 시작되었다. 지난 26년 동안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적잖은 조직 및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의 가능성과 지평을 열었다. 그 배경에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 이윤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생산활동에 전념해 온 생산자들과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실천해 온 소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통

* 『모심과 살림』 0호, 모심과살림연구소, 2012

해 도농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연대하는 도농상생의 협동사회경제 영역을 창출해낸 매우 중요한 사례로써, 국가 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지배를 넘어선 협동사회경제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한살림이 제기하고 추진해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이어 새로운 협동운동의 수준과 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

먼저 한살림이 일찍부터 제기하고 실천·지향해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동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한살림은 도농 연대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농민운동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지만 전통적 농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농민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살림은 농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생명공동체 회복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을 제기하였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은 ‘유기농’을 매개로 한 자연과 인

간의 공생 실천, 인간과 인간의 협동 실천,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공생 실천, 생산과 소비의 협동 실천이라는 지향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방향의 농민운동은 이후 생태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전면개방 국면에서 대안운동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한살림은 농촌의 희생과 농업의 피해에 따른 농민생존권 투쟁에 집중하는 농민 권익 중심의 전통적 농민운동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농민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은 전통적 생협운동(소비자협동조합)의 실천 경험과 힘을 계승하여 시작되었지만, 전통적 생협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값싸고 좋은 것’만을 바라는 소비자 권익 우선의 전통적 소비자운동과 전통적 생협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이라는 성격과 지향을 지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 권리나 주권을 내건 전통적 생협의 의미와 성격을 넘어서 ‘농업’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생협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처럼 한살림은 전통적 농민운동과 전통적 생협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단·대립된 관계를 극복해가는 도농 연대의 새로운 협동운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다. 이것은 한살림이 유통경로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뛰어넘어 직거래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켰음을 말해준다.

2. 한살림은 도농 제휴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가격, 품질, 안전성 등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 가치를 중시한다. 이처럼 한살림은 기존 시장경제시스템의 평가 기준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독자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도농 제휴형 협동운동을 전개해왔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시장경제에 지배되지 않으며 환경 부하가 높지 않은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도농공동체운동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에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안전한 물품이 안정된 가격(시장가격과 달리 재생산 가능한 가격)에 거래됨으로써 생산자의 생계와 생활을 안정시킨다. 또한 시장 출하를 위한 불필요한 생산자의 수고와 비용, 중간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적정하게 형성되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증하는 상호관계가 유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는 소비자의 이해와 합의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재배관리 노력과 생산 현장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체험 활동과 일손돕기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보다 넓고 깊은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에게도 생산 과정 및 상황에 따른 요리법이나 보존법을 고안해내는 등 생산

* 이것은 유럽 생협(소비자협동조합)이 쇠퇴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유럽의 생협은 새로운 좌표축을 상정해서 독자적인 평가 기준(가치와 의미)을 부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협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과 소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드는 생활혁명이 요구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관계에서는 물품의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 및 품질 안정이라는 경제적 편익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의미와 내용이 공유되면서 더욱 풍부하고 충실한 관계성의 세계가 형성되고 축적되어 간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시스템에서는 생산 현장 방문 등의 도농교류 활동이나 생산계획, 생육상황,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로, 밥상 앞에서 생산 현장과 생산자를 떠올리고 기후와 풍토를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진다. 소비를 단순히 물품만을 소비하는 과정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산과정에 포함된 의미와 내용, 생산자와의 관계까지도 소비하는 행위라고 이해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다원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생활창조적 행위가 된다.

한살림은 단순히 소비자 요구에 의해 규정되는 시장경제시스템으로는 온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유기농’이라는 비경제적 가치, 즉 사용가치를 찾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어온 자발적 시스템(voluntary system)으로 보아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존재로서 환경과 건강,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함께 참여·연대하고 있다.

3. 한살림은 도농 혼합형 협동운동이다

한살림은 생산자만의 협동이나 소비자만의 협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추구한다. 한살림은 소비 과정에 한정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도 시야에 포함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사회적으로 생협은 소비자 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한살림은 지역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자연스럽게 지역한살림생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물론 조합원의 구성비에서는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높지만). 이것이 한살림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특징이자 정체성이기도 하다.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조합원 쌍방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생산자·소비자 혼합형 또는 복합형 생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생협의 실천 모형과 사례는 국내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생협조직만이 아니라 농업법인이나 가공법인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한다는 한살림의 정체성을 구현해가는 방향에서 소비자(조직)가 적극 참여하는 협동적 조직구조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즉 생산자만의 협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높은 기술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치가공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재 한살림 내에서 이런 개념과 형태로 조직 전환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일부 생산법인들이 나타나고 있다(예 : 충북 괴산의 한살림축산식품 등). 그리고 생산자·소비자 혼합형 내지 복합형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서서히 모색되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설립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현재 설립 준비에 들어간 (가칭)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대표적 예다.

그리고 기존의 생협 제도 틀과는 별도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지역한살림생협과는 별도로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생·소 혼합형 내지 복합형 협동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회원제 성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출자하여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푸드 직판장이나 레스토랑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소규모 지역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살림의 실천 의지와 상상력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도농 혼합형·복합형 협동조합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수록 한살림은 더욱 한살림답게 될 것이고, 한살림운동의 내용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의 수준과 단계

1.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와 먹거리 자금 실천

* 여기에서 회원제는 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이 책임 생산하고 책임소비하는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먹거리의 자급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되어 있고, 모든 먹거리는 저비용으로 생산 가능한 국내외 생산지에서 조달되고 있다. 게다가 공업적으로 생산된 불안정한 먹거리가 다량 유통·판매되고 있다. 이제 먹거리는 자본주의 산업구조와 경제의 세계화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다. 먹거리의 상품화와 세계화가 우리의 식생활(먹거리)세계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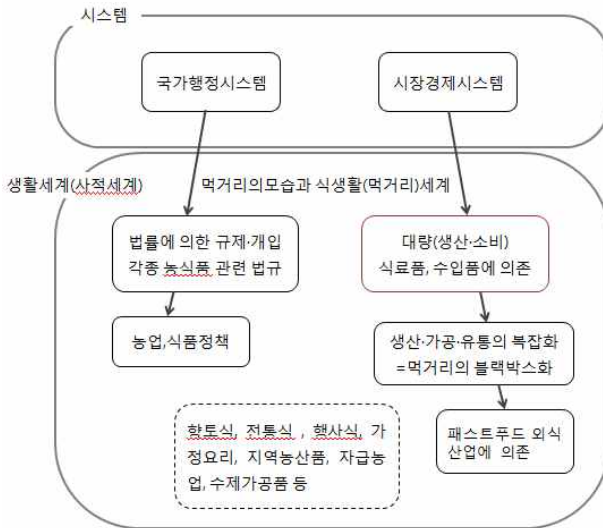
하버마스*가 말한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도식으로 보면,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시스템과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행정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가 식생활(먹거리)에도 예외 없이 깊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1).

일본의 동물학자인 오바라 히데오는 스스로 살아가는 공간을 극도의 인공환경으로 바꾸어 먹거리를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자동적으로 공급 받고 자연현상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축’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인간이 자기자신을 이런 가축의 상태로 몰아넣는 의식과 행동을 ‘자기가축화’라고 표현하면서 현대문명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이 지배하

*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J. Habermas)는 사회를 시스템과 생활세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시스템이란 국가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을 각각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시스템에는 목적합리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생활세계는 인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의 세계이다. 커뮤니케이션적 행위는 행위참가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행위가 아니라 참가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시장경제시스템과 국가행정시스템이 비대화해져가고 그것이 생활세계로 개입하는 것을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로 파악하고 그것을 비판한다.

〈그림1〉 시스템에 의한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관계도



는 ‘식생활(먹거리)세계의 식민지화’에서 벗어나 먹거리의 자급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먹거리 자급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은 먹거리 전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살림의 실천 사례에서 보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 관계 속에서 대리인(조직)으로부터 구입하는 것, 지역 내에서 교환을 통해 지역 내 자급을 실천하는 것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단계

아래의 <그림2>는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전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거리 자급 단계는 시스템 의존 단계, (직)거래 단계, 제휴 단계, 혼합 단계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간다.

첫째, 시스템 의존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분단된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먹거리가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쳐 식품매장을 통해 빠르게, 값싸게,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관계로서 그야말로 일방통행이다. 이 단계는 시장경제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관계의 수준으로 철저히 분리되고 분단되어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대형식품매장, 전문식품점이나 수퍼마켓,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등 일반소매유통 영역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직)거래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경제적 유리성을 실현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적 소비자로서 대리인(조직)을 통한 의식적인 먹거리 선택과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단순히 먹거리를 직접 거래하는 관계의 수준으로 유통경로 단축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적정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유리성이 실현된다. 아직 조직화, 규모화되지 못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관계를 가지고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를 통해, 또는 종교·사회단체의 계절 행사 등 일회성 판매를 통해 직거래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히

먹거리 직거래에 머물러 있는 생협조직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먹거리의 사용가치 등에 대해 홍보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제휴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결합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먹거리를 직접 거래하는 관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면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단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결합·제휴하는 관계로, 시장유통에서 평가되지 않는 상호 교류와 신뢰를 통해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생산물을 구입하는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의하여 생산계획량, 즉 공급예정량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자는 책임 생산, 소비자는 책임인수하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하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조직이다.

넷째, 혼합 단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주체로서 협업하는 지속가능한 순환이 생겨난다. 여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 존재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해 공동 출자,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자기완결성을 가지고 직접 거래하고 다면적으로 교류하는 단계로, 조직 내에서 먹거리 자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조직 내에서 먹거리 생산·소비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먹거리 자급 단계를 말한다.

3. 프로슈머 개념에 의한 먹거리 자급단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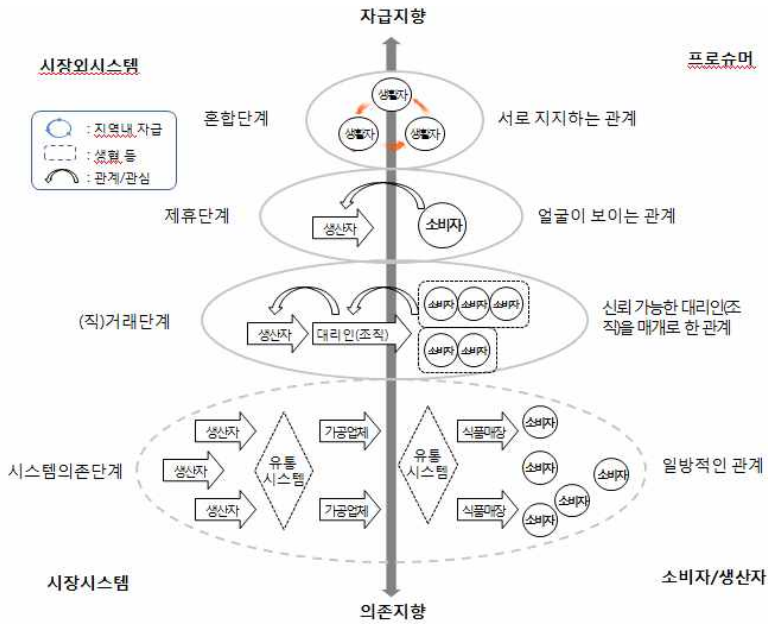
이처럼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은 자급경제와 의존경제의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 우선 가까워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 자급에서 시작하여 그 단계를 점점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생산과 소비가 일체화된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내다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합하여 프로슈머(생산소비자)라고 불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제휴 단계와 혼합 단계에서는 그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프로슈머의 개념이 깊이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살림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직)거래 단계를 지나 제휴 단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제휴 단계 보다는 (직)거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나 조직도 적지 않은 듯하다. 앞서 언급한 도농상생의 한살림 협동운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직)거래 단계를 벗어나 제휴 단계로 진전되어야 한다. 이것을 한살림 운동과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부분적이지만 지역을 무대로 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혼합되는 먹거리 자급 시스템을 실험,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먹거리 자급 단계가 ‘(직)거래 단계→제휴 단계→혼합 단계’로 업그레이드되어 갈수록 한살림의 특성과 정체성도 그만큼 잘 드러나게 된다.

한살림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프로슈머로 나아갈수록, 또 먹거리 자급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국가주의나 영리주의

〈그림2〉 먹거리 자급을 지향하는 삶의 전체상



논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살림은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살림 운동 및 정책의 도달점인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의 세상도 더욱 앞당겨지게 된다.

프로슈머는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시스템에 편입된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프로슈머의 행동원리는 화폐에 의한 교환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재생산을 중심에 두는 생명가치, 사용가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존재에서 프로슈머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내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살림운동이 안팎으로 더욱 힘

을 발휘할 수 있다. 한살림은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대항 운동으로서 프로슈머에 의한 먹거리 자급단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한살림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제휴하고 혼합되는 새로운 협동운동을 제기하고 전개해온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나오며

지난 26년에 걸쳐 생산과 소비의 대립관계를 상생·협동의 원리로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사회경제의 영역을 구축해온 한살림의 실천 경험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살림의 조직 및 사업 확대는 협동사회경제의 활동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 제휴, 협동하는 운동은 협동사회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살림운동의 매개였던 유기농 먹거리는 이제 일반 시장에서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과 저성장 상태의 장기화 가능성, 국내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 등으로 한살림의 조직 및 사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살림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한살림 협동운동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간직하

고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적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한살림 협동운동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그만큼 우리 농업과 먹거리, 우리 삶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 윤형근. 2005.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과제. 계간농정연구 통권15호: 167-193. 농정연구센터
- 조완형. 2012.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제20차 지역리더 포럼 자료집: 3-51. 지역재단
- 조완형. 2006. 생협운동의 최근동향과 대응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4집 제21호: 115-135. 한국협동조합학회
- Wan-Hyung Cho, 2012.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Hansalim's Direct Trade Movement with Eco-friendly Agrifood in Korea, Regional Symposium on Marketing and Finance of The Organic Supply Chain,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Association for Asia and Pacific(AFMA)
- 古沢広祐. 1995. 地球文明ビジョン-「環境」が語る脱成長社会-. pp. 215-242. 日本放送出版協会
- 吉田省三. 1988. 産消提携運動の現状と問題点-地域自給経済論と消費者運動-. 経営と経済 第67巻 第4号: 125-138. 長崎大学経済学会
- 西村和代. 2008. 生活者による「食の主権」回復運動としての食育: ソーシャル・イノベーションの観点から. 同志社政策科学研究 第10巻(第2号): 57-76. 同志社大学大学院総合政策科学会
- 小原秀雄. 1999. 街のホモ・サピエンス-自己家畜化するヒト. pp. 154-238. 徳間書店
- 梶淵俊子外. 2004. 食・農・からだの社会学. pp. 80-95. 新曜社
- 波多野豪. 1998. 有機農業の経済学-産消提携のネットワーク. pp. 10-26. 日本経済評論社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조 완 형 |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들어가며

한살림은 1986년 12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세상을 꿈꾸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26년간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실무자들이 한살림에 참여하여 우리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적잖은 조직 및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협동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발언권도 획득하였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기농 직거래 운동으로, 지역에서 협동적 가치와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운동으로, 그리고 우리 농촌을 살리고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생명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 2012년 제20차 지역재단 리더포럼(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교훈)에서 발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

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생협운동을 넘어서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값싸고 편리하게 공동 구입하는 일반 생협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상기후와 경제적 불안정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변화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써 한살림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만큼 한살림 스스로도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살림이 사회적 존재가치를 계속 확보해내고 사회적 대항력을 키워갈 것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살림의 경과와 현황

1. 한살림의 등장과 성장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생협운동을 처음 시작하였다. 지금에 비하면 취급 품목이나 규모가 불품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농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와 꿈만큼은 원대하였다. 한살림의 설립 취지문을 보면, “갈수록 더해가는 분열, 불신과 공해가 만연하는 죽음의 삶을 협동과 화합, 믿음이 가득찬 살림의 삶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는 한살림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히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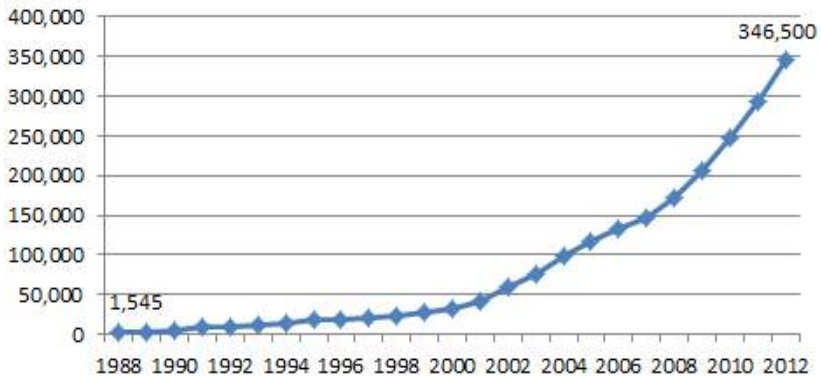
한살림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이,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통해 도농상생의 협동사회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살림의 유기농 직거래 운동에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관행화학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먹거리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 관계 회복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도농 간의 교류 및 연대 폭을 확대하겠다는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다.

한살림은 이런 비전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조직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1988년 소비자(조합원) 수 1,500명에 물품공급액 4억 원 규모였던 한살림은 2012년 말 현재 조합원 수가 약 34만 세대를 넘어서고 물품공급액도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말 현재 한살림에 참여하는 생산자 수는 2,000가구를 넘어서고 생산약정 농지 면적은 약 1,000만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전국 24여 개 조직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계약직 실무자 130명 포함), 조합원 활동가도 2,300명에 달한다(업무 참여 924명, 운영 참여 13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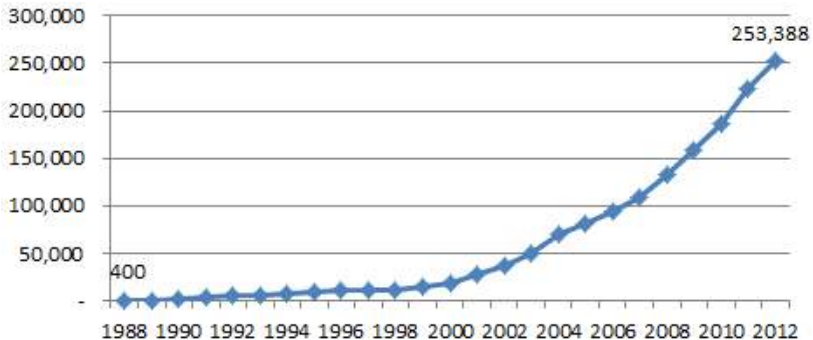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돈보다는 생명을, 경제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생산활동에 전념해온 생산자들과 이들의 수고 및 노력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실천해온 소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먹거리 관련 각종 오염과 사고가 빈발해지면서 먹

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한살림 조합원 가입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2010년 배추값 파동, 2011년 구제역 파동, 2011-2012년 방사능 오염 우려 등을 겪으면서 한살림의 직거래 운동, 즉 한살림의 가격 안정 및 물품 안전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림 1〉 한살림 조합원 수 증가 추이 (단위 : 세대)



〈그림 2〉 한살림 공급액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표 1〉 한살림 실무자 및 활동가 현황 (2012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연합부문	생협부문	생산부문	지원부문	합 계
실무자	84	299	25	6	414
활동가	7	991	8	-	1,006
합 계	91	1,290	33	6	1,420

주 : 1) 실무자는 계약직(43명)을 포함한 수치임.

2) 활동가는 운영참여 활동가(1,415명)를 제외한 업무참여 활동가를 나타냄.

한편, 이런 사회이슈를 한살림 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우선 보다 많은 소비자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혁신하여 효율화하였다. 또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조합원 참여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단순히 물품만 이용하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에도 힘을 쏟아 왔다. 201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산지방문, 농촌일손돕기, 농생물다양성 체험, 생산자·소비자 간담회, 매장체험 등 다양한 도농교류활동이 연간 506회 진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9,4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살림은 그동안 외환위기 당시(1998년) 물품사업이 일시 위축된 때를 제외하고는 조직 및 사업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 왔다. 그야말로

그동안 ‘시대의 바람’에 힘입어 빠른 속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달려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상태의 장기화와 국내 경기불황의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의 영향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한살림의 물품사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는 ‘시대의 바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살림 물품의 차별성과 신뢰성, 조직의 결집력과 구매력을 계속 높여가기 위한 다각적인 내부 대책과 전략이 강구되고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2〉 2012 한살림 도농교류활동 실적 현황

구 분	생산지견학		체험활동		일손돕기		생·소간담회		매장체험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서울	102	2,613			20	276	29	699	36	133	18	598
성남	17	663	4	150	7	38			9	65		
고양	6	231			8	80			7	29	3	141
경기남부	25	478			5	37	7	121	22	37	5	37
원주	5	235					1	8	12	19		
강원영동	6	124										
충주제천	7	242			1	20					1	15
천안아산	15	190			1	3						
청주	6	270			10	54			6	8	16	38
대전	11	305	4	225	8	64	2	43	6	29	5	25
광주	2	160			1	6						
제주	4	290			5	29						
경남	3	159	11	173	5	61	5	70	3	16		
여주·이천·광주					3	34			4	4	1	57
제주											6	
소 계	209	5,960	19	548	74	702	44	941	105	340	55	911

자료 : 한살림연합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3)

2. 한살림의 경험과 역할

오늘날 한살림은 국가 통치와 시장 지배를 넘어선 협동사회경제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과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협동의 원리로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사회경제의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한살림의 실천 경험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살림의 외형적 성장은 협동사회경제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많은 조합원들이 생협 활동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학습하고 다양한 교육과 참여 활동을 통해 주체적 역량을 성장시켜온 점은 협동사회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살림은 다양한 지역적 실천 활동을 통해 협동사회경제의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환경문제를 생활 속 실천과제로 풀어내기 위해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유리병 재사용 운동’과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펼쳐온 한살림은 2010년부터 우리 땅,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밥상을 차림으로써 먹거리 생태발자국(이동거리)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밥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녹색생활실천의 중요한 사례라 평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살림은 유기농 직거래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지역살림운동을 전개하고 있

* 2012년 한해 동안 약 16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푸드마일리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CO2 1,109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소나무 약 221,800 그루 식재 효과).

다. 지역살림운동은 먹거리를 포함해서 복지, 교육,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생활 속 실천과제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로부터 요청받는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현재 한살림은 지역별로 일공동체(위커즈컬렉티브), 아이돌봄사업, 지역복지활동 등 다양한 지역살림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현재 한살림은 친환경 면생리대를 만드는 ‘목화송이’, 친환경 음식·반찬을 즉석 조리·판매하는 ‘착한밥상 맛갈손’, 기증품 및 리폼제품 등을 판매하는 ‘꿈마네’ 등을 일공동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광명지역아동센터, 용산지역아동센터, 광명시립신촌어린이집 등 아이돌봄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복지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을 후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이것은 한살림 생협이 물품사업을 통해 얻은 잉여금과 조합원이 참여하여 조성한 기금을 지역사회에 전환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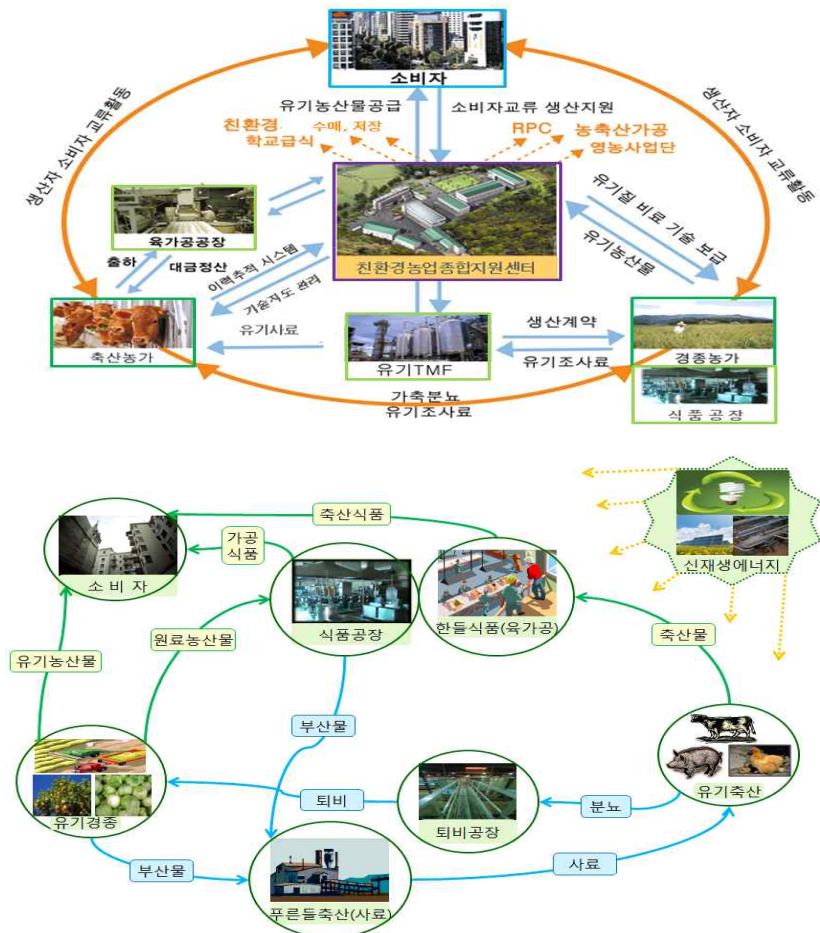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은 생산자들과 함께 기금을 모아 생산지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도 하고*, 국내 사료곡물 자급력 향상을 위한 국산사료 자급 한우 입식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살림 생산지에서는

* 2008년 9월 한살림서울생협은 충북 괴산 생산지에, 한살림성남용인생협은 강원 홍천 생산지에 농용창고 지붕을 활용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말 새롭게 건립될 한살림 안성물류센터 지붕에 햇빛발전소(약 500kwp 발전 규모)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2년 12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조합원 약 1300명 가입, 출자금 약 11억원 조성).

** 한살림성남용인생협은 국산사료 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합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201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5,250만원을 모금하여 제주 한울생산공동체에 송아지 입식자금으로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기농업(농가공부문 포함)을 중심으로 한 생태순환형 지역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충남 아산 푸른들영농조합 등이 추진해오고 있는 지역자원순환농업 실천이다.

〈그림 3〉 푸른들영농조합의 지역자원순환농업 실천 모형



3. 조직형태의 변천과정

한살림은 1986년 12월 처음 문을 연 이래 한살림의 일감(사업과 활동)을 잘 구현하기 위해 현실 조건에 따라 여러 번 조직형태를 바꾸어 왔다. 시작 당시에는 직거래로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한살림농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 즉 ‘한살림농산’이라는 쌀 가게 형태로서 개인 소매점 성격이었다.

1988년 4월에는 소비자가 단순히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참여하기 위해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용자(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어떤 조직형태를 갖는 것이 한살림의 이념 및 활동의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한살림회 또는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당시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기에 선뜻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데 머뭇거림이 있었으나 법제도적으로 허용된 조직형태 중에서 그래도 한살림의 이념과 활동의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쓰고 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소비자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란 조직명칭을 사용하였다(공동체 의미 부여).

1993년 2월에는 한살림의 이념이나 활동의 내용으로 볼 때, ‘소비자’라는 말도 불편하고 오히려 생활공동체운동, 생활협동운동이라는 의미에서 ‘한살림생활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한살림 생산자조직(생산자위원회)과 한살림연구모임(생명운동·생명사상 연구기능)의 기능도 하나의 조직운영 틀 속에 통합하였다.

한살림의 이념과 활동의 내용을 좀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1994년 6월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재편하였다(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과 일본 대지를지키는모임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생협법이 시행된 것은 1999년부터로 그 이전에는 생활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으로 활동하던 모든 단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또 한살림의 일감으로 볼 때 농업정책사업과 관련된 면이 많았기 때문에 농림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단법인한살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사업체, 생산자조직, 한살림연구모임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었다. 즉 사단법인한살림은 수도권 한살림 생협이면서도 전국한살림모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2002년부터 사단법인한살림에서 물류사업 전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한살림사업연합을 설립, 분화하였다. 생산자위원회가 자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한살림생산자모임(2007년 2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로 개칭)을 분화하고,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한살림모임을 복원하여 모심과살림연구소를 설

* 한살림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은 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 90여 개의 생산공동체(기초조직)와 20여 개의 시·군/권역생산자연합회로 구성되고, 약 2천 명의 생산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 한살림운동을 전개하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고 자연생태계를 살리며, 생태적 농업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살림운동의 확산을 위한 생산자 확보와 기금조성 사업, ▲농촌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자원재활용 활동, ▲생태적 농업의 확산과 우리 농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농정활동, 생산자조직의 활동과 사업지도, ▲지역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지 활동 지원, ▲그 밖의 조직, 교육, 홍보,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한다.

치, 분화하였다.

2003년 광역의 수도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단법인한살림(당시 수도권 한살림 생협의성격)에서 지역 수준의 조직확대 및 조직활동 강화, 효과적 조직운동을 위해 한살림고양생협(현, 한살림고양과주생협)이 조직 분화되고, 2004년 1월부터 한살림서울생협이 고양·과주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분리·독립되었다. 한살림 서울생협에서 2006년 1월 한살림과천생협(현 한살림경기남부생협)이, 2007년 1월 한살림성남용인생협이 조직 분화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부터 사단법인 한살림은 전국 한살림의 운동 및 정책 연대조직으로서 재출범하였다.

이 무렵 조직 차원에서 지역한살림의 성격이나 실제 운영가능한 조직형태로서 생활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타 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생협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역한살림조직은 생협조직으로 되어

* 생협은 특정 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와 소원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잡은 사람(소비자)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다. 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고 협동적 생활을 하기로 하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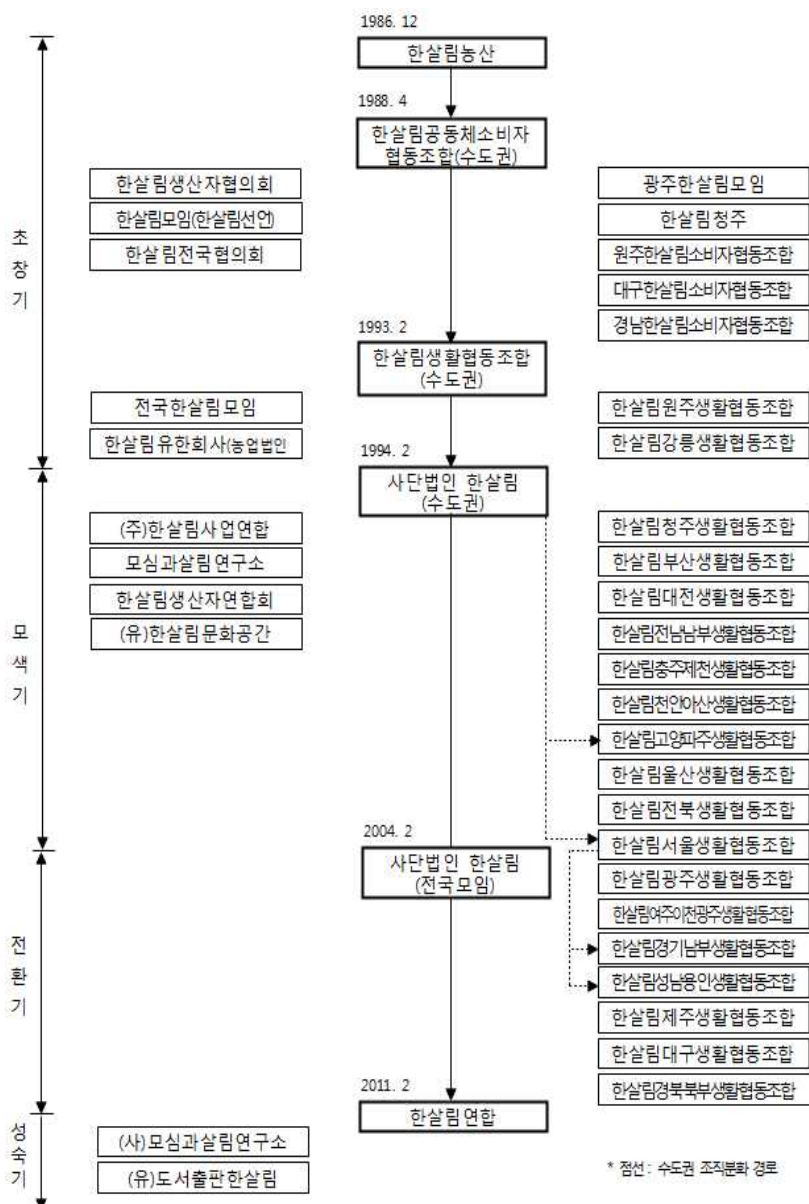
현재 지역한살림생협은 법인 형태가 생협이기 때문에 조직운영 원리 및 원칙에 있어서는 타 생협조직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지역한살림생협은 외형적으로 생협이라는 법인 형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 한살림은 온 생명을 내 목숨처럼 살려내어 더불어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기본이념 아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협동조합의 원리와 방식을 토대로 안전한 밥상차림과 튼튼한 농업살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살림은 전통적인 생협에서 말하는 소비자권리나 소비자주권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올바른 생산·소비행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한살림은 일찍부터 전통적인 생협과 달리 단순히 유통과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까지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과 과정을 중요시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한한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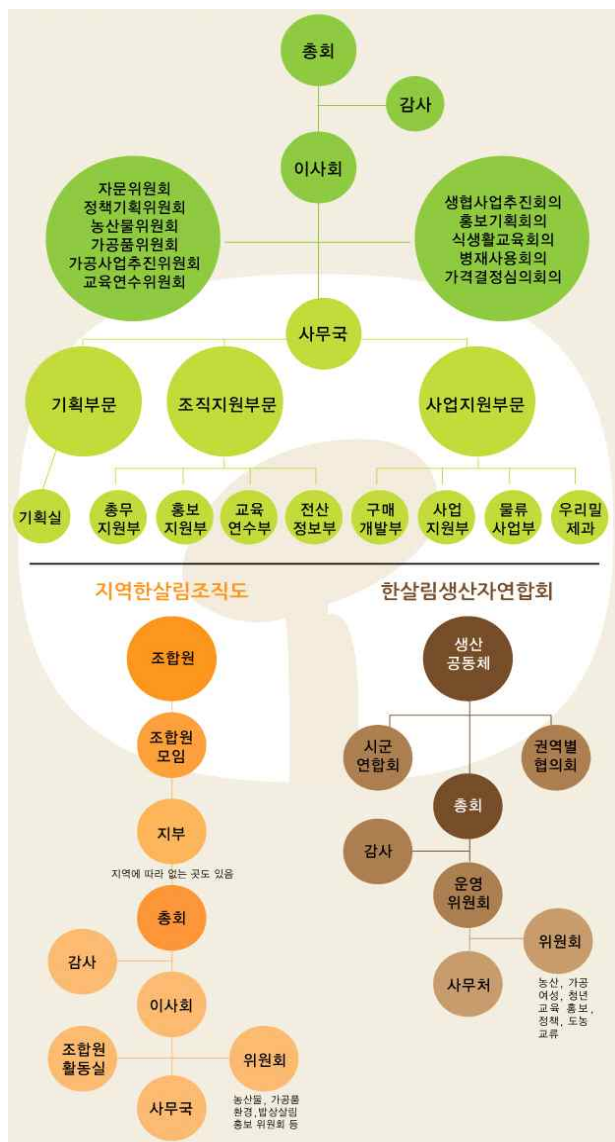
있다.

2011년 2월 한살림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아우르는 연합회로서, 지역한살림생협(20곳)과 생산자조직 19곳(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시·군/권역생산자연합회), 지원조직(모심과살림연구소, 도서출판한살림, 한살림문화공간) 등 한살림의 전체 조직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연합조직으로서 ‘한살림연합’이 설립되었다. 한살림연합은 법적으로는 생협법에 근거한 한살림생협연합회 법인 형태를 가진다. 2012년 3월부터 기존에 전국 한살림의 운동 및 정책 연대조직 역할을 담당했던 사단법인한살림의 조직·업무기능은 한살림연합으로 통합되고, 그 법인 틀은 모심과살림연구소가 승계하게 되었다.

〈그림 4〉 한살림의 조직형태 변천과정



〈그림 5〉 한살림의 조직운영체계도



4. 물품사업의 전개과정

1) 주문공급사업*

한살림은 처음에는 개별 공급을 했지만, 1987년에 조합원 규모가 800여 세대로 성장한 후 공동체 공급을 시작하였다. 공동체 공급은 소비자 조합원이 다섯 가구 이상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자본이 부족하고 대부분 농산물을 취급하며, 밀집된 조합원 확보가 어려운 그 당시 한살림에서 사전 주문에 의한 공동체 공급은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소비자 조합원이 공동체 단위로 주문내역을 집계하고 공급된 물품을 나누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물품은 한 곳으로 공급함으로써 물품사업의 경제성이 성립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물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구에서 세 가구로 공동체 이용 기준이 완화되었다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전업주부의 생활패턴 변화 등 도시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 말부터 개별 공급도 시행하였다. 현재 주문공급사업은 대부분 개별 공급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가격할인 우대혜택을 통해 공동체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에서 한살림 조합원들이 극소수였던 초창기 공동체 대표와 조합원들이 가졌던 열정과 헌신은 한살림을 지역에 알려내고 활동을 펼쳐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공동체 공급 시절 한살림 활동은 직거래를 통해 맺어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비

* 주문공급은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주 1회 물품 공급) 3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물품 이용 방식이다.

슷한 가치 지향을 가진 소비자 조합원들 간에 공동체적 신뢰 관계를 높이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주문공급사업은 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조직활동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주문공급사업을 통해서 농업과 자연환경, 지역과 살림살이에 대한 생각이 자라나고 활동가가 성장하게 된다. 공급차량은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할 수 있다. 관심을 보이는 예비 조합원에게 즉석 가입안내가 가능하다. 실제로 공급 과정에서 한살림 공급차량을 보고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주문공급사업을 위해 운행되는 소형 공급차량은 128대에 달한다.

2) 매장공급사업*

초창기 매장공급사업은 하나의 업태로서가 아니라 주문공급사업을 보조하는 물류창고 내지 사무공간 내 간이매장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공동체 공급의 불편 해소, 휴면 조합원 이용 재개, 물품 이용 확대(특히 과잉품 소비 촉진), 공동체 활력 저하에 따른 새로운 지역공동체 개념 모색(특정 지역 내 조합원 조직률 제고 방안) 등을 목적으로 주문공급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소규모 지역 매장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매장공급사업이 이전의 주문공급사업을 보완하는 수준을 벗어나 물품 이용 편리성 제공과 물품 이용 촉진을 위해 독자적인 업태로서 전개되었다. 이 무렵 매장공급액이 주문공급액을 넘어

* 매장공급은 조합원이 편한 시간에 가까운 매장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입하는 물품 이용 방식이다. 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서게 되었는데, 조합원 활동 경험이 있거나 조합원 활동 속에서 성장한 매장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매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매장공급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또 2005년 전후부터 친환경유기농식품이 보편화되면서 한살림에서도 자연스럽게 매장 입지조건, 내부시설, 매장관리 등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근년 한살림의 조직과 사업의 성장세 유지가 가능했던 데는 신규 매장 개설과 매장공급사업 성장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지역에 매장이 개설·운영됨으로써 그 지역의 조합원과 물품공급액이 현저히 확대·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공급사업과 주문공급사업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도를 높여 상승효과를 발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개설·운영되는 매장 수는 153곳에 달한다.

현재 한살림의 경우, 지역모임 등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정보소통 창구와 의견수렴 통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수시로 매장에서 지역 조합원을 대면하기 때문에 조직의 각종 정보를 원활히 소통하고 지역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특히 매장모임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매장이 개설·운영되면 지역 조합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매장을 통해 다양한 활동가가 발굴·양성된다. 매장 활동영역은 다른 활동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다. 매장활동가는 매장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역 활동가로 성장해갈 수 있으므로 매장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활동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5. 물류구조

2001년 수도권에서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체계를 정비하면서* 당시 물류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한살림생협과 공동물류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2002년 물류사업 전문사업체인 (주)한살림사업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지역한살림생협 21개 중 17개 지역한살림생협이 한살림연합에 참여하여 공동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살림의 주요 물품은 전국에 산재한 지방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주로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액이 전체 공급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집 및 분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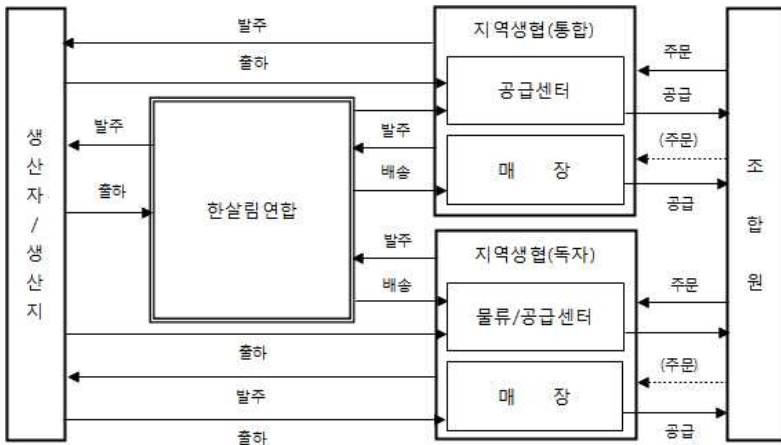
한살림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생산지와 지역한살림생협의 물류사업을 통합하는 공동물류를 선택하여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원화된 물류망으로 통합하였다. 한살림의 물류사업 통합화는 지역한살림생협이 개별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주문, 발주, 검수, 입고, 인수, 집품, 배송, 반품, 회계 그리고 구매, 생산,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생협은 물류 관련 업무량을 대폭 단축하고 연합조직은 물류업무의 전문성과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2001년 4월 경기도 광주 오폐 문형리에 건평 200평의 물류센터를 첫 건립했으며, 2005년 1월 광주 오폐 추자리에 건평 135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 물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2013년 6월 말까지 안성 대덕 보동리에 일단계 약 6000평 규모의 새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 (주)한살림사업연합은 2011년 2월 한살림연합이 창립되면서 물류처리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살림연합의 자회사로 되었다.

다른 한편, 한살림은 지역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지역한살림생협에서는 지역물품이든 연합물품이든* 상관없이 지역물류와 연합물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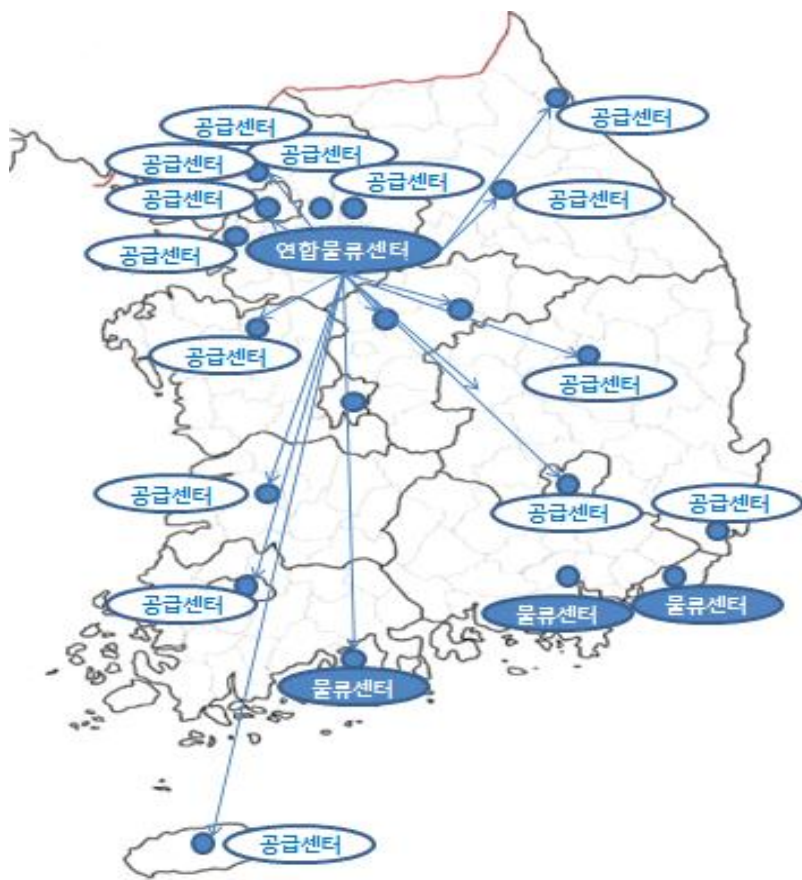
〈그림 6〉 한살림 물류사업 구조



* 지역물품은 회원생협에서 자체적으로 검토·선정해서 연합을 경유하지 않고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연합물품은 회원생협 농산물/가공품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연합 농산물/가공품위원회가 검토·선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연합물품에는 회원생협 농산물/가공품위원회가 연합 농산물/가공품위원회의 신규 물품 검토 기능을 그대로 위임받아 자기 완결적으로 검토하고, 연합 가공품위원회는 별도의 검토과정 없이 심의, 확정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 지역물류는 전산시스템(살림-e) 속에서 회원생협의 물류센터나 공급센터에 직접 입고되는 물품을 회원생협이 소속 매장까지 배송하는 물류시스템을 말한다. 연합물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 발주, 검수, 입고, 인수, 집품, 배송, 반품, 회계 등 전반적인 물류시스템이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류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7〉 한살림 물류망과 지역생협 분포도



6. 조직활동의 전개과정

1) 마을모임 및 지부 조직 결성

맞벌이 부부의 증가, 전업주부의 생활패턴 변화 등 도시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초창기 한살림의 기초단위조직이었던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서 한살림은 지역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초활동조직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한살림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마을모임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마을모임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이웃과 동네를 만나 관계를 맺고 한살림을 알려 나가는 기본적인 활동 단위 조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살림은 공동체를 대체하는 마을모임을 통해 좋은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과 생활문화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갔다. 물품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생산과 책임소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살림살이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생산지방문과 일손돕기, 생산자와의 대화 등을 통한 도농공동체 활동은 물론이고, 식생활에 대한 공부, 비누 만들기 활동, 동네신문 만들기 같은 자치활동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을모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살림 회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지역사랑방모임으로 확대되어갔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마을모임은 소모임을 포함해 575개에 달한다.

그러나 마을모임은 한살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만나고 관계

의 폭을 넓혀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나 활동영역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바뀌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이나 실천 기반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역의 조합원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으로서 다양한 성격의 지부 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한살림은 지부 조직을 중심으로 먹거리는 물론 교육, 환경, 자치 등 지역사회의 중요한 내용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부 조직 차원에서 생산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전개하면서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지역 조합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한살림서울생협의 지부 조직이 또 다른 지역한살림생협(고양과주, 경기남부, 성남용인)으로 분화되고*, 이후 한살림서울생협은 거의 지역생협의 수준 및 성격을 갖는 7개 광역지부로 재편되었다. 분화된 지역한살림생협에서도 자체 지부 조직이 준비, 결성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살림은 조합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결성·운영되고 있는 지부 조직은 15개이다.

2) 매장모임 결성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매장을 만들어서 물품을 매개로 조합원과의 만남을 일상화하고 지역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나갔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경우도 한살림청주의 지부로 시작되었던 대전, 충주제천이 지역생협으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살림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도시 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주문공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장 개설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매장은 지역에서 사업과 활동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역에서 매장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 사람들이 한살림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매장을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다 폭넓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매장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살림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한살림과 지역과의 관계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역에서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매장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초조직으로서 매장모임을 구성하게 된다. 지역한살림생협에 따라서는 이런 매장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장 내 모임방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한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매장모임은 34개 정도이다.

3) 지역공동체 참여

조합원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조합원들의 활동 역량도 성장하였다.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의 기초활동조직에서 책임(지기)을 맡아 활동 주체로서 경험을 쌓고, 지부 조직의 운영위원회, 지역생협의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역량을 갖추어 활동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가기도 한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활동가는 849명에 달하고, 지부 및 지역 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활동가는 571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표 3〉 한살림의 기초조직 현황 (2012년 12월 말 현재)

구분	서울	고양 파주	경기 남부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	강원 영동	원주	충주 제천	청주	대전	천안 아산	경남	울산	대구	부산	경북 북부	광주	전북	전남 남부	제주	경기 서남부	계
마을 모임	136	26	41	22	2	17	11		6	14	4	12	5		9	5	2			2	7	321
소모임	99	14	29	16	9	10	8	2	5	6	6	10	3		8	8	2	4	9	2	4	254
매장 모임	34																					
합계	269	40	70	36	11	27	19	2	11	20	10	22	8	0	17	13	4	4	9	4	11	575

조합원들은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범위를 비조합원인 이웃을 향해 넓혀 나가게 된다. 이전에는 ‘우리 끼리’가 좋았다면 이제는 지역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서로를 잘 아는 조합원들 간의 모임을 발전시켜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놀이나 전래놀이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알뜰장터를 열어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한다.

이처럼 한살림은 각자 처한 삶의 여건도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도 다양한 이웃들과 만나서 함께 ‘행복한 삶’, ‘살맛나는 생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한살림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펼쳐온 조합원 활동들은 곧 지역살림의 씨앗을 지역에 뿌려온 과정이기도 하였다. 한살림이라는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살림 내부와 바깥세상의 구분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살림이 지역의 중요한 대중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4〉 한살림의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2012년 12월 말 현재)

구분	농산물위	가공품위	식품안전위	생태농산물위	환경위	홍보위	조직위	생명학교위	교육위	논삼림위	기타	모임수	총인원
연합	11	18									자문위원회(24) 정책기획위(12) 가공사업추진위(13) 교육연수위(12)	6	90
연구소											연구기획위원회(11)	1	11
생산연합	5	10									여성(15), 청년(11), 교육홍보위(12)	5	53
서울	5	7		6	5	5						5	28
고양파주	4	5		5						2		4	16
경기남부	7	9	6					10	7			5	39
성남광인	11	10		12				10		8		5	51
여주이천광주		10		3				11				3	24
원주	6	6										2	14
강원영동	3	12		4				7			문화복지위(11) 반상살림위(3)	6	40
천안아산	6	5						5		5		4	21
청주	6	6										2	12
대전	7	8									반상살림위(6)	3	21
충주제천	1	5	6			2					지역물품위(3)	5	17
경남	물품위(6)				4	4		6	6			5	26
울산	물품위(4)							5	4			3	13
대구											지속가능위원회 공동체위원회	2	6
부산	물품위(5)						4	15			편집위(4)	4	28
경북북부													
광주	6	5	6			3			2			5	26
전북		5	5								지역농산물직거래추진위(5)	3	15
전남남부													
제주	5	5						6				3	16
경기서남부	7	11		5				4				4	27
합계	107	139	25	35	9	14	4	79	19	15	148	85	594

한살림의 당면 핵심과제

한살림이 변함없이 활발한 물품사업과 조직활동을 전개하여 협동사회경제 모델의 하나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당면 핵심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한살림운동을 준비할 수 있다. 미래의 한살림운동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당면 핵심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주권이 존중·관철되는 활동·사업·경영 추진

한살림의 조직 및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원 계층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의견과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이전에 한살림이 지녔던 조합원의 계층적 동질성과 물품이용의 공통성이 분산되거나 약화되고 있다. 한살림은 더 이상 의식있는 소비자들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소비자 계층이 참여하는 조직구조로 변화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정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생활패턴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공동체는 거의 사라졌고 지역모임이나 소모임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한살림의 당면과제로서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취급물품, 포장단위, 사업방식 등을 보다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것은 변화하는 조합원 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자칫 한살림이 간직하고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와는 멀어지고 조합원을 고객으로 만들 우려

가 있다. 또 조직·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운영자에 의한 한살림의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낮지 않다.

한살림은 이제 그 주체인 조합원의 개념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생협의 주체는 생산자와 분단·대립되는 소비자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노동하는 생활자라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원주권이라는 개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소수 운영자가 생협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과 운영에 조합원들이 폭넓게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을 중심에 세우는 민주적 조직운영 틀을 구축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 조합원 기초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조합원의 기초조직 참가율을 더욱 높이고), 실제 움직이는 조합원 활동주체를 폭넓게 육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조합원(대표 그룹)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실무회의와 업무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활동 소재의 다각화 모색

지금까지 한살림은 먹거리를 사업 및 활동의 중심 소재로 하여 한살림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다. 먹거리는 가장 대중적이고 생활에 밀착한 활동소재라는 점에서 한살림운동의 매우 유용한

활동소재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살림에서 먹거리가 지니는 대안운동의 활동소재로서의 대중성과 차별성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전개해온 먹거리 공급사업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조합원의 가치있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물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생활물품의 개발·공급 사업이 한살림의 이념 및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최근 복지, 공제, 교육, 노동, 환경, 지역자치 등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살림이 이런 활동소재를 적극 수용,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 조합원 계층의 다양화가 이런 요구와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금, 한살림은 그 활동소재를 먹거리와 생활물품의 개발·공급뿐만 아니라 복지, 공제, 교육, 노동, 환경, 지역자치 등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런 활동소재의 확장이 기존의 먹거리 소재를 축소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먹거리는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한살림의 활동소재이며, 앞으로도 한살림의 많은 사회적 역할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먹거리 영역을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영역에서 조합원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3. 지역 조합원과 주민이 함께 활발한 지역살림운동 전개

지역의 생활 현장 속에 뿌리를 내려온 한살림의 역할에 대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기대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한살림으로서는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조적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할 때다.

한살림은 일찍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넘어 유기농 직거래를 통해 도농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 생활협동운동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지역을 살려내는 운동, 즉 지역살림운동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동의 힘으로 생활 속의 필요들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일을 힘있게 펼쳐나가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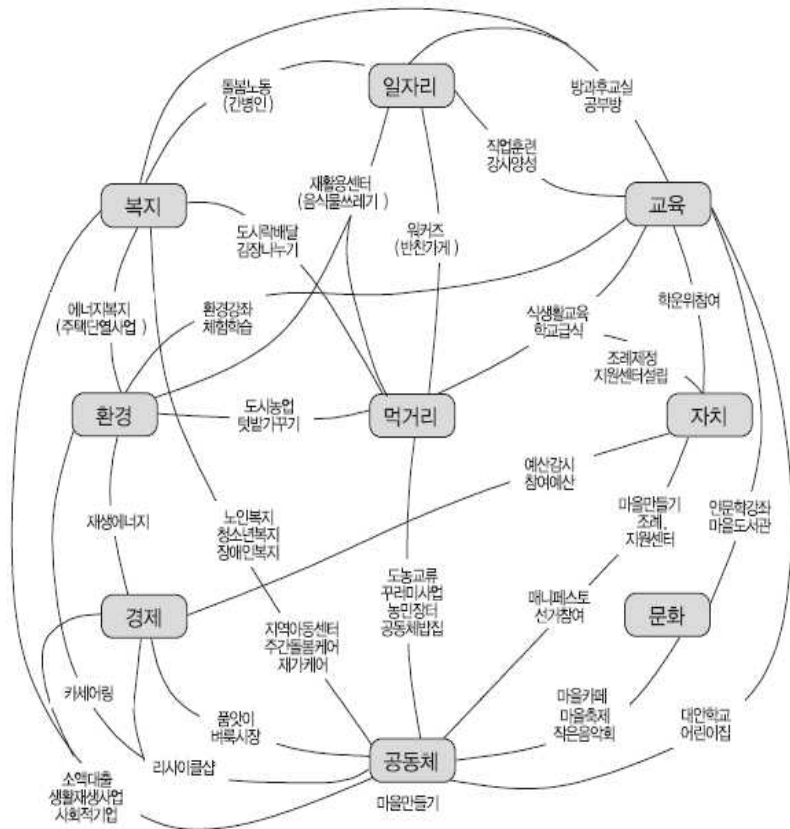
26년 전 한살림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한살림을 둘러싼 안팎의 조건과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한살림 또한 조직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중적인 실천 조직으로 변모해 왔다.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가 결합된 복합 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질은 물론 생존 자체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면서 개별화된 경쟁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로 다가와 있다. 그만큼 한살림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은 조합원들로부터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한살림이 집중해온 먹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온 활동들을 토대로 해

* 지역살림운동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권력과 자본, 정보를 가진 영향력 있는 집단이 해결해주도록 촉구하는 '요구형 운동'이나, 해결사로 자임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대변형 운동'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내거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창조형 운동'에 가깝다.

서 지역에서 다양한 살림의 영역들을 찾고 활동과제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조합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과제들을 민감하게 읽어내서 한살림 조직 전체의 실천과제로 담아내는 것으로, 조합원 활동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내는 길이기도 하다.

〈그림 8〉 지역살림운동의 내용



자료 : 「지역살림운동 길잡이」 (모심과살림연구소, 2011)

4. 적극적인 식량자급력 향상 도모

한살림은 지난 26여 년간 ‘국산’과 ‘유기농’에 방점을 찍고 국산 유기농 직거래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 축산물은 한살림의 이념과 기준에 걸맞지 않게 수입사료에 의존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사료 자급 축산의 실천 의지가 있고 적합한 지역자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산지와 함께 사료작물의 국내 자급화를 적극 도모하면서 식량자급·자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 연도별 사료작물의 국내 자급화율 목표치와 국내 식량자급 기여도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다른 품목과는 달리 해외농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 등의 수입 사료곡물과 대두 등의 수입 유량종자(식용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데 집중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와 함께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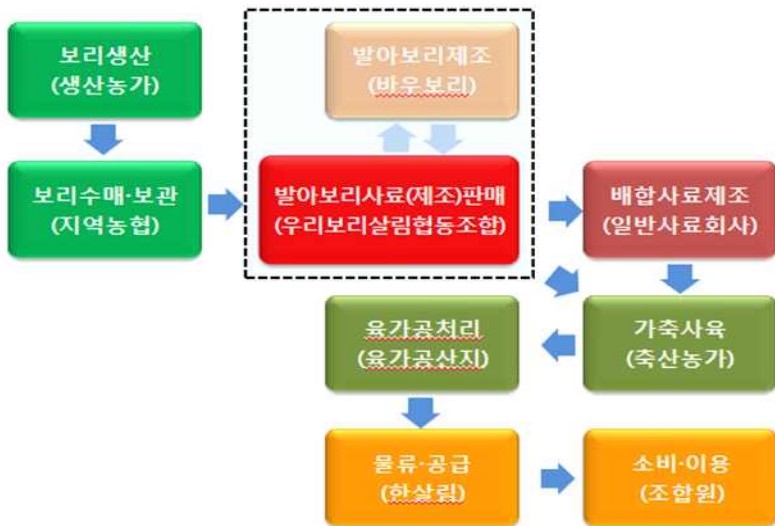
사료곡물의 자급 확대와 함께 잡곡 생산을 장려하여 식량자급기반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한살림에서는 잡곡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 다

* 한살림에서 2011년 한 해 사용한 사료곡물(옥수수, 대두박, 대맥, 대맥피, 소맥, 소맥피, 소맥분, 미강, 해바라기박 등)의 수입량은 약 1만4,700 톤에 달하며, 이것을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옥수수 단위면적당 기준) 약 680만 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살림에서는 사료곡물의 자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급 비율 30%의 곡물사료(국산 보리 20%+국산 미강 10% 혼합)를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돼지에 급여하는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산 국산 보리 1,800톤(재배면적 120만평)을 계약 재배하여 2013년 8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잡곡 공급계획량은 전년대비 31% 늘어난 1,643톤에 달하고, 생산계획면적은 전년대비 28% 늘어난 236만 평에 달한다. 이 중 유기·무농약 잡곡 공급계획량은 1,018톤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생산계획면적은 134만 평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그리고 식량자급·자치야말로 가장 윤리적이고 착한 생산·소비 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식량정책을 6%의 농업생산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4%의 소비자에게 절실한 정책이라는 국민인식을 확대하고 정치결단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폭넓게 전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 한살림의 우리보리 활용 곡물사료 자급화 추진 모형



5.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 전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재사용병의 확대와 회수 운동, 육식 줄이기 운동, 제철 농산물 꾸러미 공급활동, 물류과정의 CO2 감축 자주행동계획 수립·실행(물류시설, 산지운송·배송·공급차량, 사무공간), 가공생산지의 에너지·자원 절감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유기농업과 기후변화의 관계성(유기농업은 대기 중 CO2의 40%를 흡수·격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법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한살림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이 온실가스(CO2)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나아가 유기농업이 정부가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라는 사실을 사회이슈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한살림에서는 최근 내부적으로 기후변화로 생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생산자(지)의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써 생산재해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조성을 통해 생산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여 유기농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활동을 적극 장려해가야 한다.

* 2012년 3월부터 생협조직(조합원)과 생산조직(생산자)이 50%씩 ‘생산안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생협조직(조합원)과 생산조직(생산자)이 50%씩 공동 참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생협조직(조합원)의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공급마진율의 0.2%를, 생산조직(생산자)는 생협조직의 전환액에 상당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2013년의 경우 약 12억원의 생산안전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한살림의 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 구조



6. 유기농 관행화(산업화 지향) 견제 활동 전개

유기농 관행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살림다운 원칙·이념을 깊게 하는 유기농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행적 유기농업 진영과 의도적으로 이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오로지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되어 수입 유기농식품의 취급량을 늘리고 있는 식품·유통자본에 대한 사회적 견제활동을 한살림이 앞장서 전개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 ‘우리’, ‘국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국민)의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푸드마일리지, CO2 배출량, 가상수(virtual water) 등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리에 근거한 견제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유기농식품의 시장 각축전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조직 간, 산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대자본들이 수입유기농식품의 가공·판매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노력은 미래 한살림운동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전략이기도 하다.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생산하는 소비자(prosumer)’로서 도농간 삶의 연대를 깊게 하고 그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투자 규모가 있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친환경유기농식품 가공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출자·운영에 참여하는 생·소 협업형 가공형태(협동적 사업체)를 적극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산자(조직)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도·농 협업사업 실천모형을 실험하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연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7. 대안 식문화 운동으로서 지역 식생활교육 운동 전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시행과 2010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식생활교육 운동이 매우 폭넓은 사회적 의제로 등장,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살림도 지난 26년간 다각적으로 전개해온 식생활교육 관련 활동(유기농 직거래 운동, 유기농 생산지 방문·견학 활동, 어린이생명학교 운영,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식품안전교육, 제철 농

업 실천과 제철 농산물 이용 활동, 각종 요리교실 운영, 논생물 다양성 조사·체험 활동, 먹거리 관련 대중강좌 등)의 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먹거리의 획일화·균일화와 농업의 공업화·탈자연화에 대항하는 먹거리의 다양성·지역성·관계성·순환성·개성화를 중시하는 한살림다운 대안 식문화 운동으로서 지역 식생활교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한살림과 조합원에 단혀진 식생활교육 관련 활동에서 벗어나 그 경계 바깥을 향한, 특히 지역사회를 향한 지역 식생활교육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식생활교육 운동은 한살림의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므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은 지역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식생활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역 식생활교육 운동 전개 등에 조직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역 식생활교육 운동은 한살림이 전개해온 먹거리 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한살림에서 식생활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식생활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2620명에 달한다.

〈표 5〉 한살림의 식생활교육 실적 현황 (2012년)

구 분	생산지견학		체험활동		일손돕기		생·소간담 회		매장체험		기 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서 울	102	2613			20	276	29	699	36	133	18	598
성 남	17	663	4	150	7	38			9	65		
고 양	6	231			8	80			7	29	3	141
경기남부	25	478			5	37	7	121	22	37	5	37
원 주	5	235					1	8	12	19		
강원영동	6	124										
충주제천	7	242			1	20					1	15
천안아산	15	190			1	3						
청 주	6	270			10	54			6	8	16	38
대 전	11	305	4	225	8	64	2	43	6	29	5	25
광 주	2	160			1	6						
제 주	4	290			5	29						
경 남	3	159	11	173	5	61	5	70	3	16		
여주천주					3	34			4	4	1	57
제 주											6	
소 계	209	5960	19	548	74	702	44	941	105	340	55	911

자료 : 한살림연합 제3차 정기총회 자료집(2013)

8. 다양한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 기여

한살림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서 생겨날 새로운 협동조합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살림 사업 과정 자체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살림은 물품을 공동 구매·이용하는 구매조합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살림에 일차 농산물을 생산, 출하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나 영농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형태로 되어 있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가공영역의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조직, 인큐베이팅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취급 범위가 확대된 생활용품도 동일 조건이라면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취급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생협을 기반으로 성장한 일본의 워커즈콜렉티브처럼 생협 자체 사업을 분화하여 협동조합화 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다. 지역생협의 물품 공급 사업, 물류센터의 배송 사업과 소분·포장 및 분류·집합 작업, 포장용 및 집품용 종이박스 제작, 물류센터나 식품공장 지붕 활용 햇빛발전 사업, 홍보·출판 부문 등을 협동조합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운영하는 음식·반찬, 베이커리, 바느질(장바구니·면생리대), 리사이클숍, 찻집, 보육, 복지 등과 관련한 사업을 소규모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한살림의 상상력과 정책의지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한살림은 지역생협을 비롯하여 이렇게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연대·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재구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살림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주체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지점에 있다.

마무리하며

이제 한살림은 한 세대의 꼬트머리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6년간 한살림은 안전한 밥상살림을 통해 우리 농업을 지키고 자치와 생활협동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런 한살림운동의 매개였던 유기농 먹거리는 이제 일반시장에서도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저성장 상태의 장기화 가능성,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과거의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으로 한살림의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한살림의 이념 지향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조합원을 중심에 세우는, 조합원에 의한 한살림운동이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살림은 사기업과의 한 판 경쟁에서 이기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과 다른 차원의 생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생태계 위기와 경제불안 시대에 진정 한살림이 대안적 실천모형이 될 수 있도록 장기 전망을 그려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살림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잘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와 활동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난 26여 년에 걸친 활동, 사업, 경영의 경험과 성과와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살림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살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계속 보장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의 미래와 우리 삶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

'생명'의 눈으로 본 한살림 협동운동*

모심과살림연구소

I. '매장'에 관한 명상 - 파는 곳과 나눴어 사이, 한살림매장의 의미

“왜 이렇게 대파가 시들시들해요?” “레시피도 없는데 물건만 팔면 뭐해요?” 조합원님들의 편잔이 거침이 없습니다. 시시콜콜 캐묻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아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한살림매장의 풍경입니다. 조합원에게 매장은 무엇일까요? 매장에 들러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새로운 소식을 얻고, 햇살모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은 생산자 얼굴도 봅니다. 어쩌면 한살림운동은 매장을 통해, 매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한살림과 오랜 시간을 교류를 해왔던, 정확히 말하면 한살림의 중요한 롤모델이 되었던 일본 그린코프생협에서 한살림서울의 매장을 견학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왜? 무슨 볼 것

*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펴내는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에 실었던 글 가운데 관련 내용을 묶음.

이 있다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이 한살림매장을 보러온 까닭은?

한살림운동의 역사는 사실 매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86년 12월 서울에 제기동에 문을 연 ‘한살림농산’이라는 조그만 쌀가게도 일종의 매장이었고, 원주와 강릉, 경남과 대구 등 각 지역의 한살림도 사업과 활동의 출발점은 매장이었습니다. 이후 공급소, 위탁매장, 직영매장 등을 거쳐서, 1998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37개의 한살림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엿그제 서울 상암매장이 개장식을 가졌고 8월 초에는 충남 당진과 전북 익산에서 한살림매장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괴산과 부여 같은 농촌지역에도 매장이 생겨 생산자 주도의 매장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액의 70% 정도가 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2만 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매장을 찾고 있으니 정말 매장은 명실상부 한살림운동의 중심입니다.

매장은 생명순환의 핵심적 연결고리

매장은 조합원에게도 중요하지만, 생명사상과 대안경제의 관점에서도 의미심장합니다. 한살림 협동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과 소비

의 협동, 도시와 농촌의 협동, 생산자/소비자 공동참여형 협동조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생산-유통-소비-재생’이라는 생명순환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단절을 대안적 ‘교환(유통)’을 통해 이어주고, 폐기가 아닌 ‘재생’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매장은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고, 교환과 재생을 연결해주는 생명순환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전산부서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장이 ‘교환의 손발’ 역할이라면 물류센터는 ‘교환의 심장’, 전산부서는 ‘교환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매장은 지역으로 확장된 공동체공급

한살림매장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상권이 아니라 생활권에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규모도 20-30평 내외의 소박한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한살림’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이 한살림매장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생활협동은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일부 ‘마트형 생협’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전략입니다(최근 보고에 의하면 불황기의 돌파구로 만들어졌던 일본 일부 생협의 대규모 마트형 매장들은 대부분 적자를 본

다고 합니다).

한살림매장은 ‘지역으로 확장된 공동체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 공동체에 기초한 ‘공동체매장(community based shop)’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장공급’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살림매장은 조합원의 공동체센터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체센터’, ‘지역살림센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을과 지역의 살림살이를 의논하고,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대안사회의 네트워크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는 곳’과 ‘나눔터’ 사이에 숨겨져 있는 호혜의 마음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옵니까?”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해월 최시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바닥에 비단이 깔릴 때.” 김지하 시인은 ‘시장의 성화(聖化)’ 혹은 ‘거룩한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 ‘비단’이 물품 안에 담긴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이라면 한살림매장에는 벌써 비단이 깔려있는 셈입니다.故박재일 회장님이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그 마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사는 형편을 헤아리며 서로가 믿고 돕는 한살림”이 담겨있으니까요.

곳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살림매장 간판을 자세히 보면 한켠에 “생명의 먹을거리 나눔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장은 원래 판매장의 줄임말이니 한살림매장은 분명 ‘파는 곳’이 맞습니다만, 동

시에 ‘나눔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자와 양파와 라면을 화폐(돈)를 매개로 ‘사고팔기’는 하지만(상품교환), 그 이면에는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이 서로의 마음과 인격, 믿음과 스토리를 ‘주고받는 관계’(호혜)가 숨어있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한살림매장은 ‘밥/쌀(물품)’을 매개로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이 만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농촌과 도시가 만나고, 소비협동과 생산협동이 만나는 진정한 ‘나눔터’입니다. 즉 매장이면서 매장이 아닙니다. 이를 하여 ‘호혜시장’, 호혜와 시장이 만나 ‘비단 깔린 장바닥’이 됩니다. 바로 여기, ‘매장’과 ‘나눔터’ 사이에 한살림세상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살림매장은 ‘이어주고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매장(파는 곳)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매장은 매장이되 ‘매장(賣場)’이 아니라 ‘매장(媒場)’, 즉 중매 서고 매개하는 곳 말입니다. 한살림에서도 초기에 ‘공급소’라고 쓰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생협에서 쓰는 ‘데포(depot)’라는 말도 원래 중계소 혹은 정거장이란 뜻으로 공급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매출이란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호혜의 관점에서나 조합원/생산자 내부 거래라는 관점에서 ‘이바지할 공’(供), ‘넉넉할 급’(給)의 의미를 담아 ‘공급액’이라고 해야 좋습니다.

한살림매장은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살림의 관계로

‘이어주는 곳’입니다. 자본주의와 산업문명에 의해 단절된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장(媒場)은 곧 ‘나눔터’이고 ‘살림터’입니다. 한살림매장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위한 한살림운동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한살림매장이 문을 열어 한살림공동체의 호혜적 그물망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한살림매장에 가면

조합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생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먹을거리와 소박하고 단단한 생활용품이 기다립니다.
기후변화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토론합니다.
협동조합 만드는 법을 고민합니다.
새로운 레시피와 도시농업을 배웁니다.
재활용병과 헌옷을 모아둡니다.
오랜 만에 만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살림의 길이 보입니다.

II. 한살림,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

— ‘생명’의 눈으로 본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

협동조합이 뜨고 있습니다.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만큼은 아니

지만 방방곡곡 요란합니다. 현대 한국협동운동의 선구자인 한살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살림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왜 ‘한살림생협’ 아니라 그냥 ‘한살림’ 이라고만 부르나요? 생협이 아니었던가요?”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한살림은 ‘협동’ 운동을 하는 건가요?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들립니다. “한살림은 생명운동을 표방하고 있는데 협동조합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살림 협동운동의 성격과 특징, 즉 ‘한살림스타일’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한살림운동은 곧 협동운동입니다. ‘한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협동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살림살이.” 그리고 전국 20개 지역조직의 법인격은 협동조합법인입니다(생산자공동체의 조직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한살림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통의 협동조합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 ‘경제적 편익’의 관점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한살림스타일 ? !

한살림스타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며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늘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해야 할까?

왜 직거래를 유난히 앞세울까?

왜 처음부터 유기농이었을까?

왜 협동조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왜 거창하게 문명을 이야기할까?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전사(前史)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살림의 모습 아래 깊은 땅 속 굵고 단단한 뿌리가 있을 터이니깐요.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85년에 원주의 소비자협동조합이, 1986년 서울에 한살림농산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70년대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협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故장일순 선생님과故박재일 회장님, 그리고 무위당만인회 김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한살림운동의 대선배님들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용협동과 생산협동, 구매협동 등 여러 가지 협동사업을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용협동조합을 빼놓고는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탄광산업의 쇠퇴, 이농현상, 정치적 탄압 등이었지만,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운동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새로운 탐색의 결과로 나온 문건이 1982년에 발표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었습니다. ‘원주보고서’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이 문건에서 선배님들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영성을 지닌 살아있는 한 생명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사회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라는 깨달음은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끼리끼리 협동’에서 ‘서로서로 협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요새 말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넘어서는 협동운동의 차원변화가 시작됩니다. 농민은 농민끼리 광부는 광부끼리, 소비자운동 따로 생산자운동 따로, 각 조합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 경쟁하는 협동운동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살리는 협동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협동은 전 세계 모든 협동운동가들의 오랜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30여 년 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최근의 협동조합 언어로 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한살림, 새로운 협동을 말하다

이렇듯 이 세상과 사회운동과 협동조합을 생명의 눈으로 성찰하게 되면서 협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한살림스타일’의 협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생산·소비 협동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살림운동은 끼리끼리 협동에서 서로서로 협동으로, 협동의 확장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한살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생산·소비 공동참여형 협동조합’인 셈입니다.

둘째, 호혜적 도농직거래로 상품시장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도농직거래와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장경쟁원리를 극복한다.” 초대 한살림생산자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故김영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직거래의 심화입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값싸게 가져와 탄광지역에 파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점으로 본 직거래의 진정한 의미는 상품을 사고파는 ‘시장교환’을 넘어서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호혜’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사고팔기(교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라면 주고받기(호혜)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비록 화폐를 매개로 하기는 하지만,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밥/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중간 마진의 배제를 통한 가격 인하라는 경제효과를 넘어서, 기존 쌀 가격의 두 배를 주고서라도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목숨과 땅을 살리겠다는 소비자의 깊은 마음이 도농 직거래의 차원을 바꾸었습니다.

셋째, 유기농업, 생명의 먹을거리입니다.

생명의 눈, 모심의 눈을 뜨게 되면서 ‘밥/쌀’ 안에 들어있는 농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농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먹을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소비자에게 줄 쌀에도 절대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한살림의 무농약·유기 생산정책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는 비료와 농약을 고리로 한국 농업을 장악한 지구식량시스템을 넘어서는 변혁의 무기가 됩니다.

넷째, 다양한 협동조직을 넘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와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협동조직과 품앗이와 같은 협동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서유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생활을 함께 하는 협동공동체 코문,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제(共濟, mutual aid)조직, 노동자자주관리조직 등등. 협동조합(cooperative)도 여러 가지 협동조직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세계의 그것처럼 협동조직도 시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살림의 입장에서 경제적 편익 중심의 전통적 협동조직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형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한살림 협동운동 과정에서 크게 세 번에 걸친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직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한살림농산’이라는 조그만 가게로 문을 열었다가, 1988년 서울지역에서는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공식적인 협동조합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법인 소협중앙회 지회로서 매우 기형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1994년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의 물 모델은 일본의 도농직거래 비영리법인인 ‘대지를지키는모임’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 안에 주식회사 형태의 물류회사를 두어 회원제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법인이 아닌 협동운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된 후 2002년 한살림고양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 생협 법인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컨대 한살림 협동운동은 안팎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조직형태를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향후 한국 협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법인 형태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오히려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때문에 한번 조직형태가 만들어지면 환골탈태 없이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사회운동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다섯째, 문명사적 관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과거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모순의 근본원인이 경제체제에 있다고 보았고,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교체를 통해 삶과 사회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산업·자본주의 문명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를 비롯한 인간 이외의 존재를 약탈과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문명, 기후붕괴와 핵기술로 지구생명공동체의 절멸을 재촉하는 문명, 삶의 중심가치가 화폐·물질로 내면화된 문명에서는 절망뿐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즉 전면적인 전환만이 희망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 변혁적 협동운동을 탐색해야 할 일입니다. 그 변혁의 동력은 더 이상 생산력이나 계급투쟁이 아닙니다. 변혁적 협동운동의 새로운 동력은 호혜의 마음, 생명의 마음, 모심의 마음 아닐까요?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을 위하여

한살림 협동운동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 혹은 특징을 관통하는 열

최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세계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권력자나 백성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나아가 풀과 나무와 돌맹이마저도 하늘같은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밥 한 그릇 안에 생명세계가 보이고 단호박 한 알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느낍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 안에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이끌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리적 소비’도 훌륭합니다만, 한살림은 진정 ‘영혼이 있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III. ‘벼 생산 관련회의’의 놀라운 의미

-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의 실마리

“믿기 어려운 광경, 한살림 벼 수매가 결정회의”

“지난 6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살림사업연합의 물류단지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쌀값을 두고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일반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한 톨이라도 더 깎아 싸게 살려고 하고,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농사꾼들은 값을 내려 받으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값을 높여서 사려고 한다. 겨울 초입에 벌어진 한살림 벼 수매가 결정 회의장 풍경이다.”

2010년 12월 24일자 한겨레신문에 소개된 기사입니다만, 20여 년 전인 1991년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시절에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해 쌀값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한살림 가족들이 토론을 합니다. 생산자는 “모든 물가가 오르니 우리라도 잡아두자”고 말하는데, 소비자는 “그래도 10% 정도는 인상되어야 생산자도 생활을 할 것 아니냐”고 설득합니다. 결국 그해엔 소비자가 이겨서(?) 10% 정도 쌀값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에서나 세계적으로 유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부나 유통기업이 가격 결정을 좌우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는 먼 나라 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긴장과 갈등 대신에 격려와 감사가 오고가는 상식 밖의 일이 한살림에서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 이야기입니다. 한살림의 농민 생산자들과 소비자 대표들이 1년에 한 번 그해의 쌀(벼) 소비 상황을 돌아보고 이듬해의 쌀 생산계획과 가격을 협의하는 ‘벼 생산 관련회의’ 말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20여 년 전 얼굴을 처음 마주한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들은 난감했습니다. 겨우 가격을 정하긴 했지만 생산자도 소비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격이 결정돼도 쌀값을 한꺼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에 농민들이 저장도 떠맡아야 했고 당연히 목돈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벼를 미곡처리장에 일괄 수매하고 생산농가에게는 일

시에 쌀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단순히 ‘수매가격’을 넘어서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뜻에서 ‘벼 생산 관련회의’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광주물류센터에서 ‘2012년산 벼 생산 관련회의’를 열었고 4년간 동결되었던 쌀 가격을 3.6% 인상하고 생산량도 9.2% 늘렸습니다.

생산-소비 약정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살림 쌀은 특별합니다. 가격이나 칼로리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사회경제적 대안’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한살림의 ‘벼/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소비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 그 이상입니다. <한살림 쌀의 차별성>이란 홍보물을 보면 한살림 쌀의 일곱 가지 차별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가격결정’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격결정: 일반적인 생산자와 중간 상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생산자 대표들과 소비자 대표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거쳐 수매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소비의 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속사정과 형편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살림”임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한살림 쌀의 가격결정에 담긴 ‘차별성’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장가격(market price)’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때문에 시장가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쟁관계가 됩니다.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는 생산과 소비 사이를 파고드는 자본의 폭력적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는데, 이때 거대자본이 행사하는 경제적 힘의 원천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끼어들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 양쪽의 관계를 끊는 동시에 양자의 사정을 파악해 양쪽 모두로부터 이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는 ‘자금력’, 엄청난 현금과 신용을 동원해서 생산자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은 결국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끊고 각개 격파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을 지배하고 경제적 부를 독점적으로 축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살림의 생산-소비 약정은 그 자체로 자본에 대한 ‘저항’ 이면서 동시에 ‘대안’ 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크게 협동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needs)’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호혜성(reciprocity)’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세계에서 생산과 소비는 서로를 살리는 순환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산·소비 약정시스템’은 이상주의자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살림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바로 그 호혜적 관계의 이상을 20년 이상 실현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유통자본의 ‘독점가격’이나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이 적대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가격’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가격’ 시스템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살림은 이미 직거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북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이 경기도 물류센터를 거쳐 다시 전북으로 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는 ‘지역거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살림이 큰 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곧게 지켜오고 있는 ‘생산-소비 약정’과 ‘책임생산-책임소비’, ‘생산자-소비자 호혜가격 시스템’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감히 말하자면, 새로운 협동운동(경제공동체운동)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꾸로 생산-소비 약정과 호혜가격은 한살림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의 호혜적 순환관계(호혜서클)는 매우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기후붕괴로 생산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서로 간에 더욱 깊은 배려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호혜서클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를 ‘호혜가격’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 생산안정기금 등을 포괄적

인 ‘호혜기금(혹은 협동기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호혜가격과 ‘거대한 전환’

20여 년 전 한살림 출판부에서 펴낸 『생명의 경제 공생의 사회』라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나까무라 히사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협의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례로 <쓰고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체제적 대안으로 말입니다. 비록 규모는 매우 작지만(지금도 소비자 회원이 3천 세대 정도입니다), 40여 년간 일관되게 생산-소비 직거래운동을 해왔던 일본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대안사회, 대안문명의 희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살림은 벌써 20년 넘도록, 그리고 2천 생산자회원과 35만 소비자조합원 시대에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저자가 한살림 사례를 접했다면 세계적인 모델로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는 사반세기 한살림운동의 소중한 사회적 성과 중 하나입니다. ‘벼 생산 관련회의’는 한살림만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대안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확산할 때입니다. 생산(자)과 소비(자)의 순환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생명을 살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 <쓰고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은 한살림과도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으며, 올해 2012년에도 창립자인 쓰찌다 다카시 선생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획기적인 출발점입니다.

‘초심’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귀하게 지켜왔고 하늘같이 높은 뜻을 지닌 모임이지만, 과연 지금도 그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은 형식화된 ‘벼 생산 관련회의’가 다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고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모심과 살림의 마당으로, 또한 생명-협동시대의 사회적 대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추신1: 소소한 생각 하나. ‘벼 생산 관련회의’라는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가격만이 아닌 생산-소비 전반을 협의하자는 숨은 뜻은 짐작이 되지만 얼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긴 엄청난 사회적 의미도 잘 전달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름’을 잘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산자-소비자가 “모심의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으로 헤아려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는 엄청난 사회적 의미를 잘 드러낼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추신2: “적정한 쌀값은 얼마일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언급하지 않았습시다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나 한살림에서나 다른 물가에 비해 쌀값은 정말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1991년 한살림 쌀의 조합원 공급가는 80kg 기준으로 168,00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3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이 시중 쌀값도 94,000여원에서 175,000여원으로 올랐으나 역시 두 배가 채 안 되었습니다.(참고로 쌀의 마진율은 시중이나 한살림이나 15% 정도입니다.)

20년 사이 생활비나 소득의 상승률을 생각하면 정말 ‘겨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살림 조합원의 구매력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생협 및 유기농매장과 의 가격비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을 높여도 소비가 줄어든다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비 보장, 소비량, 구매력, 유통비용/마진율,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살림쌀값’과 국가적 ‘쌀값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의 생산비 보장 및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변
과-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
습니다.

IV. 한살림 협동운동의 '비밀'

— '생-소-하나' 원칙과 새로운 사회·경제

“한살림은 협동조합 맞나요?” 한국사회에 협동조합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한살림도 많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립니다. 적지 않은 사
람들이 “한국형 협동운동의 개척자”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다
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
니다. 분명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인인데도 말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한살림은 유별난 협동조합입니다. 1988년 ‘한살림공동
체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했고, 1993년 한국 최초로 ‘생활협동조
합’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결집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틀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 특별함의 바탕엔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대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 한살림 협동운동의 대원칙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입니다(앞으로는 간략하게 ‘생-소-하나’라고 쓰겠습니다.). 한살림이란 말 자체가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본래 ‘한살림’, 즉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쓴故박재일 회장님의 편지가 절절합니다.

“원래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돕는 사이인데, 현실은 서로 갈등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중략) 땅과 사람,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못 믿는 사이가 되는 삶이 살림의 삶일까요, 죽임의 삶일까요?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좋아하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1987)

물론,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갈라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만나야 합니다. 박재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은 둘로 나뉜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2003)

한살림운동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구를 지키며 땅의 생명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천규석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소비자가 생산자

가 되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생산·소비가 통일된 세상은 한살림의 이상이자 인류의 이상”이었습니다(「한살림공동체란?」, 1992).

이렇듯 생-소-하나는 한살림 협동운동의 절대원칙입니다. ‘하나됨’의 바탕에는 ‘모심’의 생명사상이 깔려있습니다만, 동시에 한살림 협동운동의 방향과 전략, 조직형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소-하나의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직거래’ 이고, 소비자공동체의 조직형태가 ‘생활협동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생산자공동체의 조직형태는 다양합니다.)

직거래를 넘어서1: 삶과 사회를 바꾸는 ‘생-소-하나’

그런데 생-소-하나가 곧 직거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살림을 유기농산물 직거래 업체로 생각하고 한살림의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직거래는 유력한 전략이긴 하지만,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거래를 생각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념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은 ‘사고판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딱 나뉘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와 인간관계를 바꿔내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직거래가 생-소-하나를 실현하는 핵심전략이기는 하지만, 단지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한살림 운동의 종착점은 ‘삶과 사회(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입니다. 한살림에서 생활양식이란 단순히 소비만이 아닙니다. 생산-교환-소비-재생으로 순환하는 경제생활 전체가 넓은 의미의 생활양식입니다. (여기서 ‘재생’은 ‘폐기’의 반대말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폐기로 끝나면서 생태순환이 단절되지만, 유기농업의 순환에서 보듯이 ‘재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생-소-하나는 우리의 소비생활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소비양식’을 바꿉니다. 소비를 생산과 무관하게 따로 생각하게 되면, 값싸게 구입해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게 최고가 됩니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을 어떻게 하든 무관합니다. 농약을 치고 화학비료를 뿌려 땅을 죽이고,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를 뜨겁게 덥혀도 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살림에서 소비는 땅과 사람과 온 생명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만 잘 먹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협동적 소비로 나아갑니다.

생-소-하나는 소비양식뿐 아니라 생산양식도 바꿉니다. 돈 벌기 위한 생산이 아니라,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이 됩니다. 많이 팔기 위해서 생산하려고 하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유기농업이란 관계를 생각하는 농업입니다. 땅과의 관계, 이웃

농민과의 관계, 소비자와 관계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생명농업, 협동적 농업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소유양식까지도 바뀝니다. 생산자가 함께 소유하는 공동소유 혹은 협동적 소유, 나아가 소비자까지 출자에 참여한 생산자-소비자 공동소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생-소-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줍니다.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는 선망이며 절대선이었습니다. 사람도 자원도 정치도 예술도 모두 도시로 집중되었습니다. 농촌은 그저 도시에 먹을거리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도시적 삶은 우월하고 농촌의 삶은 열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한살림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와 농사체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새로 배웁니다. 도시적 삶과 농촌적 삶, 유목적 삶과 정착적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땅과 분리된 개인의 삶도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생-소-하나는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즉 도시에 나간 아이들에게 쌀과 김치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듯 사고팔기가 아닌 주고받기의 마음과 관계가 녹아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공동체, 한살림이 되었습니다. (이는 뒤에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극복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소-하나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소비생활과 생산방법을 바꾸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

켰습니다. 나아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세계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였습니다.

직거래를 넘어서2: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생-소-하나

“현재 이러한 활동은 농촌과 도시의 직거래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와 만남,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여 상품사회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명의 농업인 유기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주부들이 중심인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을 사먹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우리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쓰여진 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1990년에 출판된 무크지 『한살림』에 실린 “새로운 삶의 이해와 생활협동운동”이라는 주제의 좌담회 앞머리 글입니다(박재일 회장님과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이순로 이사장님, 한살림생산자협의회 故김영원 회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참고로 부제는 “생활협동운동, 특히 유기농업과 소비자운동의 연대를 중심으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직거래를 넘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거래 자체도 어려운데 자꾸 넘자고 합니다. ‘직거래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자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넘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까요?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면, 새로운 경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영원 회장은 좌담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직거래와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경쟁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한살림 공동체운동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와 대립을 극복하는 제3의 방향으로”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유기농업은 생명문화의 기본」, 199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동시적 극복’, 이는 「한살림선언」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한살림운동의 사회적 지향점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직거래는 직거래이되, ‘사고파는 직거래’가 아닌 ‘주고받는 직거래’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가 서로를 울리는 자본주의식 ‘적대적 교환’이 아니라 ‘호혜적 교환’입니다. 호혜란 서로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는 주고받기입니다. 증여와 답례의 관계를 말하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선물(gift)경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고파는 관계가 아닌 주고받기의 관계는,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서로 다짐했던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은 사고팔 수 없다는 것을.

그 구체적인 방법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획생산 책임소비’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의가격’, 혹은 ‘호혜가격’입니다. 한살림 매장에서는 감자가 동이 나도 일반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소비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정된 생산량이 소비되지 않으면 이용촉진을 통해 소

비를 책임집니다. 2008년 농업용수 문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아산·당진쌀 8,800가마를 전량 ‘책임소비’했던 한살림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살림의 직거래는 매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의 창조입니다. 시장은 원래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경제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오만이거나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의 새로운 경제질서란 시장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가들이 지배하고 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산당이 지배자가 되고 이들이 육성한 공기업 등이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시장의 지배자는 다르지만, 그 작동원리는 돈벌이, 즉 이윤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란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호혜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영혼마저도 돈벌이의 대상, 즉 상품으로 만들어 사고파는 ‘상품시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호혜시장 말입니다. 시장 본래의 기능, 즉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장이 그것입니다. 한살림매장과 벼룩시장과 로컬푸드장터가 바로 호혜시장입니다. 나아가 교환의 매개가 되는 화폐나 화폐대체물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지역통화는 호혜시장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라

인 중고품장터나 개인 간 금융(p2p lending)도 호혜시장의 예가 됩니다. 35만여 세대의 소비자와 2천여 세대의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간 한국은행권으로 2,500억 원어치의 물품을 주고받는 한살림은 한국에서 가장 큰 호혜시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호혜시장의 구조를 호혜서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호혜서클, 혹은 호혜시장이 지역과 전국을 아울러 네트워크 하거나, 보다 큰 시장(플랫폼)을 열면 정말 자본주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벌이경제가 아닌 살림살이경제 시스템, 이를테면 ‘호혜주의 시장경제’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빗대어서).

한살림운동의 목표는 다른 유기농산물판매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살림운동이 진정 열망하는 것은 대안적 시장의 창출과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질적으로 변혁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강물은 깨끗한 물로써만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운동의 선배님들은 소비자공동체와 생산자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꿈 꾸었습니다. 한살림 공동체는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를 넘어서 ‘삶/생명(life)’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시스템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시스템과 국가가 좌우하는 계획시스템을 동시에 넘어서는 한살림 운동의 시스템적 대안인 것입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공이 되는 하나됨을 위하여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일찍이 “한살림운동이란 모두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고 “조합원이 한울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뒤섞여서 각각의 독특한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산자는 생산자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존재를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기소멸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 대의를 받드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하나됨이 아니라, 나를 살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하나됨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지고 또 서로를 꽂꽂 묶어놓은 대동단결(大同團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서로 어울리되 똑같지 않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동시에 연결된 전체이기도 한살림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기 주체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협 조합원으로써의 조합원 주체성, 생산자공동체 회원으로써의 회원 주체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자 조직 안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조직 안에서 각각의 지역과 개인이 우주의 꽃 한 송이로써 자기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나는 미처 몰랐네 네가 나였다”는 말씀은 ‘나 없는 너’가 아니라,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한살림 협동운동의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를 잘 계승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도시의 마을모임과 농촌의 생산자공동체가 진정한 한살림의 기초조직(기초공동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 주체성과 생산자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까? 살아있는 생산자 공동체와 소비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형태가 좋을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물류센터와 매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의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소-하나의 정신과 호혜시장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호혜적 시장경제(약칭 호혜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 

* 본문에서 인용한 글의 대부분은 한살림 20년 기념자료집 『햇살과 바람, 그리고 정직한 땀의 기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무크지 『한살림』의 좌담 내용은 『생명운동자료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자료공간 <http://archive.hansalim.or.kr>

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137-862)

전화 02-6931-3604 | 전송 02-6715-1808

누리방 <http://mosim.or.kr> | 전자우편 mosim@hansalim.or.kr

한살림 협동운동 자료모음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II

기획·편집 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이 박맹수

펴낸날 2013년 7월 31일

* 날권 값은 3천원, I·II권 묶음은 5천원입니다.